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4월 12일 금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71호

김정일최고사령관

인민무력부선물관을 돌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새로 건설된 인민무력부선물관을 돌아 보시였다.

선물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올린 인민군군인들의 지성어린 선물을 만년대계로 보전할수 있는 나라의 또 하나의 귀중한 재보이다.

총 건평 1만여평방메터에 달하는 선물관에는 인민군군인들이 군건설위업에 쌓으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불멸의 령도업적,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용과 주체혁명위업을 무력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할 자기들의 충성의 결의를 반영하여 창작한 조선화, 유화, 보석화, 조각, 공예품을 비롯한 수많은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 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선물관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 보시면서 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축물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건설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어 인민군군인들이 각이한 재질을 리용하여 창작한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보시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군인들의 창작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의 집체적지혜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창작품들은 모두가 다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대걸작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보기 드문 훌륭한 작품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인 우리 군대에서만 나올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우리의 군인들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강군일뿐아니라 높은 문화예술적소양을 겸비한 자랑스러운 보배들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면에서 모범인 조선인민군이 우리 혁명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억세게 서있기에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어 군인들이 생산한 여러가지 악기들도 보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자체로 질 좋은 악기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부대들에 각종 악기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모든 병사들이 항상 문화정서적으로, 명랑하고 락천적으로 생활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혁명무력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사상사업은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군인들의 정치사상교양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과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리용무부위원장, 조선인민군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대장들과 김윤심, 오금철상장들을 비롯한 장령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비서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문화예술, 보도부문 책임일군들이 동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10일

≪F－15K≫를 남조선에 판매하려는 미국을 규탄

9일부 이곳의 신문들은 최근 미국이 핵무기를 실을수 있는 ≪F－15K≫전투기 수십대를 남조선에 팔아 먹으려고 책동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론평들을 실었다.

≪로동신문≫ 론평의 필자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증강책동의 범죄적속심을 폭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이 작전반경이 조선반도 경내를 훨씬 벗어 나는 ≪F－15K≫전투기를 남조선에 들이밀려는것은 남조선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확립의 군사전략적거점으로, 남조선무력을 대아시아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우기 남조선에 대한 무기판매는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민족을 희생시키는것도 서슴지 않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알려 진데 의하면 미국, 남조선련합군사령관과 미국보잉회사 부회장은 ≪F－15K≫전투기판매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군부에 압력을 가했다. 지어 ≪F－15K≫생산공장이 있는 미주리주출신의 미상원의원 크리스토퍼 본드는 남조선이 문제의 전투기를 사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것이라고 로골적으로 협박했다.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실현을 위해 사용할 대량살륙무기들을 사전에 현지에 배비하면서도 그 부담을 남조선에 지우고 무기장사로 막대한 돈까지 벌어 제 주머니에 채우는 미국의 행위는 철면피하기 그지없다.

≪민주조선≫ 론평의 필자는 미국은 사태를 바로 보고 무력증강책동을 걷어 치우며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9일

태양회, 태양절맞이 순례여행 진행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태양회≫회원들이 태양절맞이 순례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을 떠난 그들은 화진포를 거쳐 서울과 포항 등 **김일성**주석님의 발자취가 깃든 역사의 고향들에 대한 순례여행을 벌였습니다.

순례여행 소감에 대해 ≪태양회≫회원 김은하씨는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을 경모하는 마음이 우리를 떠밀어 순례여행에 나서게 됐다며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주석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토로했으며 회원 한범석씨는 주석님 다녀가셨던 뜻깊은 도시를 찾으니 우리 민중들에게 베푸신 그 분의 은덕이 되새겨져 가슴 뜨거웠다며 조국광복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바치신 주석님의 위대한 한평생을 7천만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지역 ≪태양회≫회원들의 이번 순례여행은 **김일성**주석님의 90회 생신을 뜻깊게 기념하려는 불타는 마음의 표출로 때 이르게 찾아온 봄과 더불어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아름다운 광명의 꽃, 충정의 꽃을 활짝 피우기로 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4월 10일

2 노작
-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2)

4 세기와더불어
- 6장 2절 마지막 모습 (1)

6 칭송
- 되돌아 가신 길
- 주석님 오늘도 집무보시네
- 세계의 칭송

7 구국의 소리
- 부시는 경거망동하지 말라
- 구국의 소리 뉴스 － 4월 10일
-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 미제의 잔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1)

10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4월 10일 보도
-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은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초석이다

12 평양방송
- 조국통일위업수행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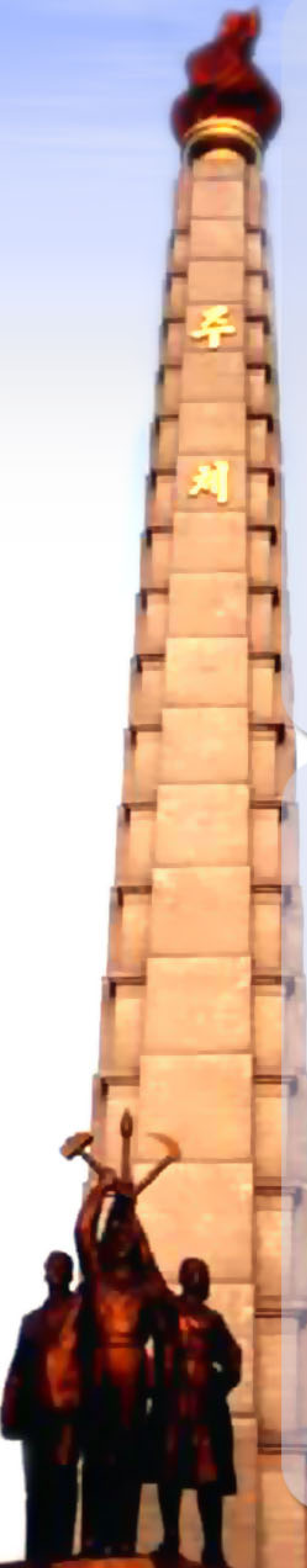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13 아리랑뉴스
- 시민사회단체, 다양한 통일강좌 개최해
- 겨레끼리 축하엽서 보내자
- 국민 과반수, 아리랑 ≪관람 의향 있다≫
- 미, ≪노무현 길들이기≫로 들어간다
- 2002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발족

15 운동강좌
- 부시를 곤경에 빠뜨리는 한민족의 반제자주역량(6)

16 조국통일3대현장
- 조국통일의 기본열쇠 (2)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2)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노작 - 주체71(1982)년 10월 17일



해방후 우리 당은 집권당으로서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걸어왔다.

집권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건설역사는 당대열을 확대하고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 과정이였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선 문제는 당을 급속히 대중적 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였다. 당을 대중적 당으로 발전시켜 광범한 근로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게 하여야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동원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여 새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당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 당을 대중적 당으로 건설할 데 대한 독창적인 조직노선을 내놓으시였으며 공산당을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 당을 결성하시였다.

공산당을 대중적 당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부합되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였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서는 혁명에 노동계급뿐 아니라 농민, 근로인테리들이 광범히 참가하게 된다. 정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은 노동자들과 함께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광범히 묶어세우고 그들에 대한 통일적 영도를 보장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나갈 수 있다. 더욱이 지난날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계급과 함께 농민들과 근로인테리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문제로 나섰다. 해방후 공산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고 혁명이 발전함에 따라 당을 광범한 근로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우고 그 힘을 조직동원할 수 있는 통일적인 대중적 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성숙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우리 당은 제때에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고 노동계급과 함께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당에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근로대중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고 대중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으며 각계각층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었다.

우리 당을 대중적 당으로 건설하는 데서 나선 중요한 과업은 당대열의 급속한 양적 장성에 질적공고화를 따라세우는 것이였다.

1948년 3월에 진행된 당 제2차대회는 당의 질적 공고화를 대중적 당건설에서 나서는 중심문제로 내세우고 당세포의 강화, 당사상사업의 개선, 당의 조직적, 사상적 통일의 보장 등 당의 질적공고화를 위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당 제2차대회에서 제시된 당의 질적 공고화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이 개선되고 당세포가 전반적으로 생기발랄한 전투적 조직으로 강화되었으며 당원들과 간부들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그리하여 당대열이 질적으로 공고화되고 당의 통일단결이 강화되었으며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당의 영도적 기능이 높아졌다.

1950년대는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시기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당에 있어서 엄혹한 시련이였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전체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전쟁의 조건에서도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제4차,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을 제때에 바로잡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도록 이끄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하여 일시적 후퇴시기에 조성되었던 무규율적 현상들이 극복되고 당안에 혁명적 규율이 확립되었으며 당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하여 당조직사업에서 나타났던 좌경적 편향이 극복되고 당대열이 확대강화되었다. 특히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를 통하여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제때에 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기 때문에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보장할 수 있었다.

전후 우리 당은 주체를 세우며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후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복구사업을 끝냈으나 형편은 아직 어려웠다. 그우에 당내에 남아있던 종파분자들이 수정주의를 받아물고 당에 도전하여 나섰다. 조성된 정세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6년 4월에 당 제3차대회를 소집하시고 당건설분야 앞에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며 당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하시었으며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 당에 도전하여 나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자들의 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고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당 제3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전원회의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종파주의, 수정주의 등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요소들을 반대하고 주체의 기치, 당의 통일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데 있다. 당 제3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전원회의를 계기로 우리 당사업에서는 주체가 더욱 튼튼히 서고 당의 통일단결이 일층 강화되었다. 이처럼 우리 당은 제때에 종파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내외정세가 복잡하던 때에도 동요없이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은 1960년대에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과업이 완수되어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전일적으로 확립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축성됨으로써 우리 당활동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또한 반당종파분자들과 그들의 사상여독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커다란 해독을 끼쳐온 종파를 청산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는 역사적 위업이 이룩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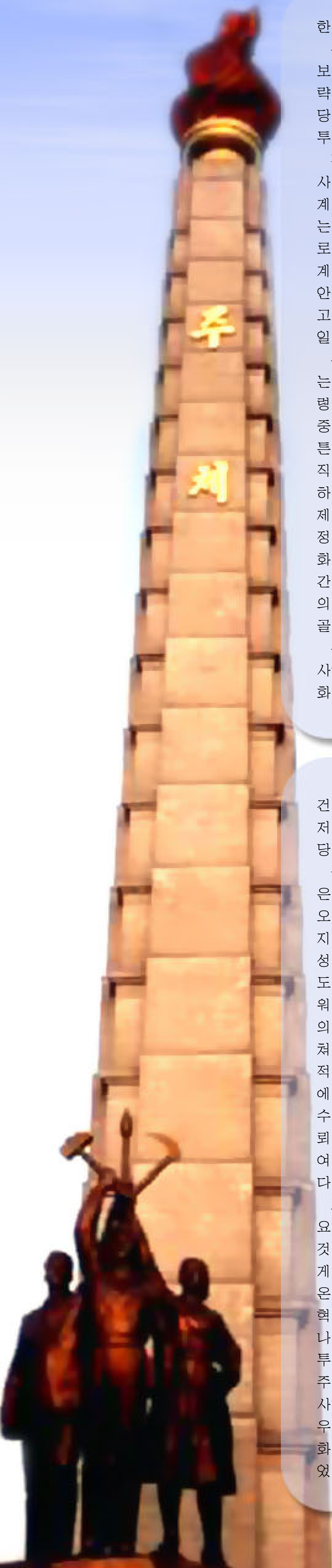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역사적 시기에 소집된 당 제4차대회에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계속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하시면서 특히 수정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고수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당중앙위원회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당중앙위원회와 운명을 같이하여 끝까지 투쟁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당 제4차대회가 당건설분야 앞에 제시한 과업들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당의 영도적 역할이 한층 높아졌으며 당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고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특히 1967년 5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1970년대는 우리 당 발전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시기였다.

1970년 11월에 소집된 당 제5차대회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열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것을 당사업의 총적 과업으로 규정하고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 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당사업의 총적 과업을 견결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 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다져놓았다.

당의 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며 당은 자기사명을 다할 때까지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여야 한다. 노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그 숭고한 사명을 끝까지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공고화하는 사업,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다지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타도제국주의동맹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투쟁노정을 걸어온 우리 당은 그 길위에서 세기에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었으며 철석같이 통일단결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력한 혁명적 당으로 장성강화되었다.



한다.

우리 당은 당과 혁명발전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 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우리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당원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규정하고 모든 활동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데 복종시켜 진행함으로써 당안에 유일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당대열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 당은 특히 혁명의 골간역량을 꾸리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징표로 하고 노, 중, 청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렸으며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여 그들의 당성단련을 강화하였다. 당이 제시한 간부혁명방침과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당의 간부화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간부대열과 당대열이 더욱 강화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골간역량이 튼튼히 꾸려졌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키며 간부대열과 당대열을 강화하는 사업을 새로운 혁명적 사업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우리는 당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제때에 침투되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중앙집권적 규율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노선과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움으로써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1970년대에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이룩된 성과는 우리 당이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투쟁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1980년대 초에 열린 당 제6차대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새로운 웅대한 투쟁강령을 내놓으면서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노선으로 계속 틀어쥐고 당대열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한 당건설분야의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실현하여 나가는 위대한 당으로서 자기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광스러운 투쟁노정을 걸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었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영도하는 전과정에서 언제나 모든 승리의 열쇠를 당을 강화하는 데서 찾고 먼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혁명대오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었다.

≪ㅌ.ㄷ≫의 기치밑에 혁명의 앞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오늘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는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이 위대한 투쟁의 조직자, 영도자인 우리 당은 사상성과 조직성에서, 대중과의 연계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불패의 전투대오로 더욱 장성강화되었다.

오늘 우리 당 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 기초가 마련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도체계가 튼튼히 섰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ㅌ.ㄷ≫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독창적인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은 노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 당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자기인민의 이익과 자기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활동을 벌여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우리 당은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될 수 있었다.

원래 노동계급의 당이 주체를 세우는 것은 당자체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노동계급의 당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 영도기관인 것만큼 마땅히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이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남의 풍에 놀게 되면 결국 당도 혁명도 다 망쳐먹게 된다. 오직 제 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당만이 자기의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강력한 당으로 될 수 있으며 자기나라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

노동계급의 당이 주체를 세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특히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심하게 나타나 공산주의운동에 큰 해독을 끼쳐온 우리 나라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반일민족해방투쟁시기에도 해방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 시기에도 언제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혁명투쟁을 전진시킬 수 있었다.

(내일 계속)

정치사전

조선로동당 (1)

조선혁명의 참모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되였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기 위하여 옳은 투쟁강령을 가지고 대중에 의거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려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을 내올것을 구상하시고 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ㅌ.ㄷ≫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 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 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0년대 후반기에 혁명적당 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시여 1930년에 있은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제시하시면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 7월 초 카륜에서 몸소 키우신 새 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무으시였다. 첫 당조직은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당조직이였다.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각지에 당조직들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시였으며 1934년에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조직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조직은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당조직건설사업을 더욱 활발히 조직전개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위대한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전반기에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1936년 2월 남호두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군정간부회의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힘 있게 벌려 정세가 조성되면 제때에 당창건을 선포할수 있도록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지시였으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광복후 지체없이 우리 당을 창건하시였다.

(내일 계속)

2권 제6장

시련의 해

1. 남만으로
2. 마지막모습
3. 기쁨과 슬픔
4. 합작은 불가능한가?
5. 단합의 리념아래
6. 구국군과 함께
7. 소사하의 가을
8. 라자구등판에서

2. 마지막 모습 (1)

우리 부대가 원정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던 어느 날 철주동생이 나를 만나려고 소사하에 찾아왔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소영자령에서 일본지도관이 인솔하는 위만군수송대를 들이쳤다는 소문이 안도경내를 넘어 돈화와 연길지방에까지 파다하게 펴져 어디 가나 그 전승담으로 술렁거릴 때였다. 송강, 대전자, 류수하자의 혁명조직들에서는 소영자령전투의 진상을 알려고 소사하에 일부로 사람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나는 처음에 동생도 그런 사명을 띠고 나타난 것이라고만 짐작하면서 심상하게 대하였다.

그런데 내 짐작과는 달리 철주는 소영자령매복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대원들이 제식훈련을 하는 모습을 구경하거나 지휘부 옆방에서 원정대에 망라된 대원들과 함께 짚신삼이로 하루해를 보내는 것이었다. 지휘부가 제정한 원정준비품들의 항목에는 짚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짐작을 바꾸어 철주가 소사하에 나타난 목적은 원정대의 출발준비를 거들어주려는데 있을 것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였다. 저녁시간이 다되었을 때 철주는 마을의 농민조직 책임자를 만나보고 지휘부로 돌아오는 나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왔던 김에 저녁이나 같이 나누고 가라고 하였지만 그 청도 사양하면서 그냥 돌아가겠다고만 하였다. 동생은 무슨 말을 할듯말듯하면서도 종시 그것을 입밖에 내지 않고 좀 류다른 표정으로 나의 얼굴을 불안스럽게 살펴보시는 것이었다.

나는 륙감적으로 동생이 원정준비나 거들어주자고 소사하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과 나를 찾아온 것을 보면 필경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나에게 터놓지 않으면 안될 사연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어머니나 동생자신의 신상에 생긴 어떤 곡절일 것이었다.

나는 지휘부에 들리지 않고 마을어귀까지 철주를 바래다주면서 동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혹시 토기점골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게 아니냐?≫

내가 토기점골이라고 한 것은 집을 념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집이라는 말은 어쩐지 입에 올리기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아니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철주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였다. 연극을 잘하는데다가 해학이 풍부한 동생이어서 내 눈을 속일 수 있는 웃음쯤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웃음은 서글픈 빛을 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쪽 귀퉁이가 인차 이그러져버렸다. 동생은 내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나의 어깨너머로 먼 허공을 응시하였다.

≪무슨 곡절이 있으면 있다구 실토를 해야지 말을 안하구 그대루 가버리면 나는 나대루 걱정이 될게 아니냐. 이것저것 재지 말구 어서 말해라.≫철주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더 위독해지신 것 같아요. 이틀째나 밥 한술가락 드시지 않았어요.≫동생의 그 말은 뢰성벽력처럼 내 고막을 두드렸다. 나는 어머니가 음식을 전폐하였다는 말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중병으로 시름시름 앓아오셨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그런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혹시 수토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고도 생각하였다. 무송지방의 주민들가운데는 토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 이 병에 걸리면 손이 까드라들고 손가락 매듭이 굵어지며 목병이 나서 로동능력을 상실당할 뿐만 아니라 30살을 넘기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오동진이 무송에 와서 우리 어머니에게 길림으로 이사하라고 권고한 동기의 하나도 바로 이 수토병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자는데 있었다.

어머니는 안도에 오신후부터 가슴앓이로 고생하였다. 그 당시는 가슴앓이를 ≪적≫이라고 하였다. 가슴속에서 큼직한 무엇이 치밀어오르는 것 같다는 것이 어머니의 호소였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위암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사들은 ≪적≫이라고 진단은 내리었지만 치료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병에는 백약이 무효였다. 그저 가슴이 치미면 침상에 눕거나 끼니를 건느거나 미음을 묽게 쒀서 몇 술 뜨는 것이 유일한 치병방법이었다.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려고 그때 나의 동무들이 여러모로 애를 많이 썼다. 나의 친구로서 공청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을 보내주곤 하였다. 신문지상에 나는 광고를 보고 어머니의 병에 좋은 약이라고 짐작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사서 소포로 부치었다. 그런 소포는 길림서도 오고 심양서도 오고 할빈이나 룡정같은 고장에서도 오군 하였다.

안도지구의 한의들도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대사하에 있는 한의들은 돈도 받지 않고 어머니를 치료해주었다.

나는 철주의 충혈된 눈빛과 침울한 얼굴표정을 보고 어머니의 병세가 이제는 막다른 대목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에 쌀이 있는가고 동생에게 물으니 그것도 바닥났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음날 소사하에 동무들이 주는 돈으로 좁쌀 한말(대두 한말)을 사가지고 토기점골로 향하였다. 쌀 한말이면 세 식구(어머니, 철주, 영주)가 한달동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대두에 쌀 한말은 15키로그람가량 되었다. 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는 그때의 우리 집 형편에서 쌀 15키로그람이면 잔치도 치를 수 있는 대단한 량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한말의 좁쌀이 도무지 성차 보이지 않았다. 멜빵이 어깨를 아프게 파고들었지만 나는 도무지 그 쌀짐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나에게 기울인 사랑에 비하면 오히려 솜털같이 가볍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전에 아버지한테서 13도창의대장으로 추대된 과정을 보면 아주 극적이고 교훈적인 데가 있었다. 관동의 병장들이 리린영을 자기네 의병부대의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찾아갔을 때 그는 림종직전에 이른 로부의 곁에서 병시중을 들고 있었다. 리린영은 그때 의병은 다른 사람이 지휘할 수 있으나 부모는 한번 돌아가면 다시 만나뵐 수 없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로부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감히 집을 떠난단 말인가, 나는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 청을 사양하였다. 그러다가 나흘째되는 날에야 그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전국의 의병들은 앞을 다투어 리린영의 휘하에 모여들었는데 그 수는 무력 8,000명에 달하였다. 얼마후에는 허위, 리강년의 부대까지 합세하여 창의군의 력량은 8,000명으로부터 1만명으로 불어났다. 소총으로 무장한 3,000명의 구한국군도 이에 합류하였다.

전국의 의병장들은 리린영을 13도창의대장으로 추대하고 그의 진두지휘에 따라 서울로 진격하였다. 서울로 쳐들어가서 일거에 통감부를 격파하고 보호조약을 폐기하자는 것이 의병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이 작전계획에 따라 의병부대들이 서울로 육박하고 있을 때 부친상을 당한 리린영은 지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훌연히 고향으로 내려가고 말았다. 그의 귀향은 선발대로 나섰던 허위의 패배와 함께 의병의 사기를 저락시키고 부대를 와해에로 몰아넣는 비참한 결과를 빚어내게 하였다.

나는 학생운동을 할 때 길림에서 류길학우회에 망라된 성원들과 함께 부친상을 당한 리린영이 고향에 내려간 문제를 가지고 론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많은 동무들이 리린영을 쓸개빠진 의병장이라고 비난하였다. 1만명을 통솔하는 의병대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서울진공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부친상을 당했다고 집으로 돌아갔으니 그게 무슨 사나이이고 애국자인가고 하면서 막 기염을 토하였다.

하지만 모두가 리린영을 비판만한 것은 아니었다. 개중에는 그를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부친상을 당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 상제의 구실을 하는거야 응당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고 하면서 그를 효자라고 추어올리기까지 하였다.

지금은 나라에도 충실하고 부모에게도 효성을 다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부모들에게 효도를 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효자라고 하였다.

나는 리린영의 행동은 참된 효자의 표본이 되지 못한다고 론박하였다.

≪나라와 가정을 다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참다운 효자라고 할 수 있다. 가정만을 중시하고 나라의 환난을 경시한다면 그런 사람을 어찌 효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도 효성에 대한 유교적 가치관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리린영이 만일 자기 책임을 다하여 목적을 성취하고 나서 부친의 묘소를 찾아 술이라도 붓고 분향재배하였다면 그의 이름은 후손들앞에 더 빛을 냈을 것이다.≫이것은 봉건도덕과 유교적 효성관이 골수에까지 깊숙이 배겨있던 사람들의 낡은 사상에 대고 던진 폭탄과 같은 선언이였다.

류길학우회 성원들은 두패로 갈라져 성주의 말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면서 치렬한 론전을 벌이었다.

지금 우리 사로청원들이나 소년단원들에게 있어서는 론쟁할 여지가 없는 단순명백한 문제이지만 그때로서는 어느것이 옳다거나 또 어느것이 그르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상당히 까다로운 론쟁거리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나라와 가정을 다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배기 효성이라는 것을 온 나라 인민이 한 사람처럼 깨닫고 그것을

➡

여성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시는
조선공산주의 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여사

신념으로 받아들이기까지에는 실로 수십년의 력사가 필요하였고 피눈물로 얼룩진 체험이 필요하였다.

쌀짐을 지고 토기점골의 집으로 찾아갈때 나는 새삼스럽게 리린영의 이 일화를 생각하였다. 어째서인지 그 창의대장의 행실이 옳은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지난날 쓸개빠진 의병장이라고 입을 모아 비난했던 그 사람의 행위에서 내가 약간의 정의나마 발견하고 마음속으로나마 그를 동정하고 그에게 약간의 리해를 표시하게 된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사람이 혁명을 한다고 가정을 망각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며 그것은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혁명도 인간을 위한 것인데 혁명가들이 어떻게 가정을 무시하고 부모처자의 운명에 무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항상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운명을 하나의 맥락에서 보아왔다. 나라가 역경에 처하면 가정도 편안할 수 없으며 가정에 그늘이 지면 동시의 나라의 표정도 어두워진다는 것이 우리의 지론이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전사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적구에 한개 련대의 병력을 파견하는 전쟁사상 류례없는 조치도 서슴없이 취할 수 있었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의리이고 도덕이었다.

나도 초기에는 이 도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감옥에서 나와 동만땅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다음에는 돈화와 안도를 중심으로하여 여기저기를 왔다갔다하면서 집에도 종종 들리고 어머니의 병에 도움이 될만한 약재도 뻔질나게 구해드렸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어머니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내가 집에 드나드는 회수가 잦아지게 되자 어머니는 어느날 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었다.

≪네가 혁명을 하려거든 혁명에 전심하고 세간살이를 하려거든 세간살이에 전심하고 량자간에 어느 하나를 택하거라. 내 생각같아서는 집에 철주도 있고 우리들끼리 벌어먹을 수 있으니 너는 집근심일랑 하지 말고 혁명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나는 이런 말을 들은 다음부터 집으로 다니는 회수를 줄이었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한 후에는 거의나 집에 드나들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후회되었다. 어머니가 경계하더라도 나로서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어야 했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팠다. 가정에도 충실하고 나라에도 충실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였다.

토기점골이 가까워질수록 내 걸음은 어쩔 수없이 빨라졌다. 그대신 마음은 각일각으로 무거워졌다. 중환에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뵙게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산란해졌다.

물웅뎅이에는 갈대가 벌써 퍼그나 자라 바람에 흐느적이고 있었다. 갈이 많아서 이 고장을 갈밭마을이라고 했었는데 아래촌에 사는 김병일네가 몇해전부터 토기를 구워 팔면서부터 이 한적한 심심벽촌도 천지개벽을 하여 토기점골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통나무를 가로질러놓은 다리를 건너 웃마을로 올라갔다. 낯익은 초가가 어느새 내 눈에 비쳐들었다. 엉성한 싸리바자도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볏짚 이영도 제때에 갈지를 않아 폐가와 같이 한산해보이는 집, 그것이 바로 몇해째 남정의 손이 닿아본 적이 없는 우리 집이었다.

삽짝문을 열고 뜨락에 들어설듯말듯하는데 방문이 급하게 벌떡 열리었다.

≪어머니!≫

나는 문설주에 기대앉아 웃고 계시는 어머니앞으로 총총히 다가서며 소리쳐 불렀다.

≪글쎄 내 아무래두 발자국소리가 귀에 익다 했지.≫

어머니는 토방위에 벗어놓은 쌀자루의 멜빵을 만지며 반가와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집출입이 잦다고 꾸중을 하시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나무람은 없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얼마동안 문안이야기가 오락가락하였다. 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어머니의 안색이며 음성이며 몸가짐이며를 순간순간마다 살피면서 건강상태를 가늠해보려고 애썼다. 외형으로 보아서는 지난 겨울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기력은 흠뻑 줄어들었다는 것이 알리었다. 팽팽하던 가슴도 홀쭉해지고 목도 가늘해지고 귀밑머리에는 흰오리마저 눈에 뜨일만치 섞여있어 어쩌면 세월이 이렇게도 일찍 우리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겨운 흔적을 낼 수 있을까하는 서글픈 마음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나는 그날밤 어머니와 함께 자정이 넘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본군대가 어데까지 들어왔는가, 유격대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량세봉 선생과는 어떻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가, 근거지에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두서없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어머니는 화제를 자꾸만 정치문제로만 유도하였다. 집안 살림이나 자신의 병세가 화제에 오르면 얼른 매듭을 지어버리고 다른 문제를 꺼내어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아들에게 병을 숨긴다는 것은 어머니 자신이 그만큼 중태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나는 판단하였다. 어머니의 앞날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륙감적인 판단은 나로 하여금 등골에 찬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전률을 느끼게 하였으며 남모르는 눈물을 삼키게 하였다.

다음날 나는 아침밥을 일찍 해먹고 철주동생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나무를 하려는 것이었다. 집둘레를 돌아보니 땔나무도 한두단밖에 보이지 않았다. 집에 들린 기회에 나무라도 몇 짐 해놓고 가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욕심같아서는 손을 댄 김에 몇달분의 화목을 해놓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산이 깊지 않다보니 강대도 칠것이 없어 부득불 쉬나무를 베지 않으면 안되었다.

≪철주야, 이런 것 말구 더 분한이 있는게 없겠니?≫

내가 이렇게 묻자 동생은 무명잠뱅이를 추어올리며 대답하였다.

≪아무거나 한짐 해가지고 내려가지요. 어머니가 알면 꾸중하시겠어요.≫겉보기에는 철부지같았는데 벌써 철이 다 들었다.

철주는 낫질을 하면서도 연송 초조하게 마을쪽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몰래 나무를 하러왔는데 낌새를 채면 어쩌나 하는 눈치였다. 내가 집안일에 잔신경을 쓰면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나는 쉬나무가지를 휘여잡으며 손에서 불이 일게 낫질을 하였다. 우리는 해가 질무렵에야 지게에 나무단을 올려놓고 마을로 내려왔다. 갈밭이 내려다보이는 굽인돌이에 나서자 마당끝에 서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띄웠다. 나는 작시미를 짚고 산길을 내리면서도 줄곧 무거운 상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다. 중환에 계시는 어머니를 두고 원정을 떠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질 것 같았고 앞길이 막막해보였다. 우리는 원정의 기한을 한두달로 정하였지만 그 한두달사이에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부대의 행로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였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전처럼 몇해 더 지하투쟁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서 몇달에 한번씩 집에 들려 가정사도 의논하고 어머니를 위로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한뉘 고생속에서 살아오시었고 남달리 심적 고통도 많이 겪어오신 어머니를 위해 내가 자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할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신지 얼마안되는 때에 나마저 이 안도땅을 훌쩍 떠나고 나면 허전하고 의지할데가 없어 병약한 어머니가 어떻게 견디어내시겠는가, 그렇다고 하여 나 일개인 가정문제때문에 유격대의 한해 활동방침으로 이미 설정해놓은 남만원정계획을 취소할 수도 없지 않은가.

≪아니, 이 산에서 땔나무가 없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느냐?≫ 사립문가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문득 언짢은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나는 대답대신 웃음을 짓고 땀을 씻으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차츰 네가 이상해진다. 무송에 있을 때두 그렇지 않았구 저너머 흥룡촌에 있을적에두 그럴줄 몰랐는데 요새는 집걱정이 늘어났으니 말이다.≫어머니의 음성이 갈려있었다.

≪오래간만에 풀냄새를 맡으니 가슴이 후련해지는구만요.≫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못들은체하고 천연스럽게 뜨락으로 걸어들어갔다.

그날저녁 우리는 오래간만에 네식구가 한상에 둘러앉았다. 접시위에는 버들치구이도 놓여있었다. 그 버들치구이가 별맛이었다. 어데서 생긴 찬이냐구 물었더니 어머니는 막내동생이 형이 오면 상에 놓은 찌게가 없어 야단이라구 걱정하던 끝에 낚시질을 해서 처마끝에 꿰미채로 걸어 말린 것이라고 하였다.

손가락만큼한 것이 한접시었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 다 없애지 못하고 몇 마리 남기였다.

(내일 계속)

일화

되돌아 가신 길

주체38(1949)년 1월 5일 평성시 삼화동(당시 순천군 사인면 삼화리)을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한 평범한 노인의 집에 잠깐 들리시었던 적이 있었다 한다.

이날 저녁 늦게야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이 고장을 떠나신 주석님께서는 갑자기 달리던 차를 멈추게 하시었다.

주석님께서는 의아해 하는 수행간부들에게 오늘 우리가 들렸던 농민의 집이 광복전에 그 마을에서 제일 가난하게 살던 집 같은데 낮에 잠깐 밖에서 말하고 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였다.

이윽하여 그분께서는 간부들에게 그 노인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는가, 나라의 수상도 우리 집이 보잘 것 없으니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말하고 가더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그 집에 다시 가서 노인에게 사죄하고 하룻밤 자고 가자고 말씀하시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주석님을 모시고 평양으로 달리던 승용차는 방향을 바꾸어 오던 길로 되돌아섰다.

승용차가 삼화리를 가까이 했을 때였다.

주석님께서는 간부들에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마을사람들이 다시 달려나와 환영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수 있고 주인집에도 폐를 끼칠 수 있다고 하시며 뒷마을어귀에 조용히 차를 세우고 낮에 식사하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차안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들어가자고 이르시었다.

그때는 밤 11시가 넘었다. 광복된 조국땅에서까지 어버이 주석님께 따끈한 음식을 올리지 못하고 소한의 추운날 밤 한데서 식사를 대접하게 된 간부들의 마음은 송구스럽기 그지없었다.

간부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더운 방에서 더운 밥과 뜨끈한 국을 먹으면서 싸웠는가고 말씀하시며 일없다고 오히려 간부들을 위로하시었다 한다.

이날밤 마른빵 몇개로 저녁끼니를 에우신 주석님께서는 다시 그 노인의 집을 찾아 주셨다.

꿈같은 사실에 접하여 밖으로 뛰어나온 노인에게 주석님께서는 주무시는데 안됐다고 하시며 낮에 잠깐 만나고 가자니 서운해 할 것 같아 다시 왔다고 하시며 그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방안으로 들어 가시었다.

평범한 한 노인을 위해 주석님께서 하룻밤 초가집에서 주무신 다음날 새벽이었다.

집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신 그분께서는 노인에게 아직은 생활이 넉넉치 못한데 왜 식사를 준비했는가고 하시면서 우리야 잠깐이면 평양에 가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굳이 사양하시었다.

그러자 노인은 주석님께 차린 것이 없습니다만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한끼 드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간절히 아뢰었다 한다.

주석님께서는 노인의 간절한 청을 받으시어 그와 한 밥상에 마주 앉으시어 아침식사를 나누시었다 한다.

참으로 어버이 주석님의 한평생은 이렇게 민중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민중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쳐 오신 ≪이민위천≫의 위대한 한평생이었다.

송가

주석님 오늘도 집무보시네

1. 주체의 성지 태양의 집에서
주석님 오늘도 집무보시네
이북의 남녀노소 만나 주시며
장군님 잘 모셔야 강성대국온다고
간곡히 간곡히 당부하시네

2. 민족의 성지 태양의 집에서
주석님 오늘도 집무보시네
이남의 겨레들을 맞아 주시며
장군님 받들어야 통일조국온다고
뜨겁게 뜨겁게 말씀하시네

3. 만민의 성지 태양의 집에서
주석님 오늘도 집무보시네
온 세상 사절들을 반겨 주시며
장군님 따라야 자주세계온다고
다정히 다정히 가르치시네
주석님 영원히 높이 모시고
주석님 높은 뜻 지켜 가리라

흠모

세계의 칭송

≪**김일성**주석께서는 20세기 정치사에 가장 성공적인 영도자로 공인되시어 전세계 진보적 인류로부터 태양으로 숭상되어 오시었다.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은 조선과 인류의 운명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발전풍부화시켜 시대의 지도사상의 지위에 올려 세우신 비범한 사상이론활동의 역사이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을 지니신 주석께서는 생전에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고 그에 따르는 구상과 설계도를 펼쳐 주시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민중은 그 어떤 세계적인 풍파에도 흔들림없이 오직 한길로만 나가고 있다.≫(마다가스카르 혁명적 근로자직업연맹 총서기)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존엄을 빛내어 오신 절세의 애국자, 걸출한 위인의 한생이었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분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었으며 강대한 일제에게 항일대전을 선포하시었다. 그분께서는 비범한 영군술로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었다. 각하께서는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으며 3년간의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수호하시었다. 그분께서는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등 전인미답의 거창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시어 조선에 민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었다. 정녕 사회주의조선의 모습은 **김일성**각하의 존함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베우카트 타소우)

≪**김일성**주석은 조선민중과 세계평화애호민중들 속에서 커다란 존경을 받으시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 계시는 분이시었다. 민중의 자유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전세계에서의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견결한 혁명가, 탁월한 영장이신 **김일성**주석은 세계에 비할 바 없는 위대한 분이시었다. 그분의 업적은 우리 모두의 심장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모잠비크대통령)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일성**동지를 잃은 것은 조선민중 뿐아니라 국제노동계급의 큰 손실로, 슬픔으로 된다. 그분은 국제노동운동의 탁월한 원로이시며 위인이시다. 국제노동계급은 그분께서 인류해방위업에 바치신 불멸의 공적에 대하여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스페인노동자위원회 위원장 카나쵸)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온 세상 사람들이 세계의 탁월한 수령으로 받들어 모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김일성**주석은 인류역사에 다시 없을 불멸의 업적을 남기시었다. 우리는 온 세계가 자주의 기치높이 **김일성**주석의 높은 뜻을 꽃피워 나갈 것을 확신한다.≫(부룬디인민연합 위원장)

부시는 경거망동하지 말라

요즘 미국대통령 부시가 내외민중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악의 축≫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다 아는 바이지만 미국대통령 부시는 지난 1월29일 국회에서 한 ≪연두교서≫에서 이북을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느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라느니 뭐니 하는 온갖 악담을 늘어놓아 우리 국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까지 항의와 비난을 받았다.

부시가 귀구멍이 막히지 않았다면 그것을 귀담아듣고 마땅히 심사숙고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악담을 늘어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시는 ≪악의 축≫발언을 계속 내뱉고 있다.

부시는 지난 3월27일부터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린빌과 죠지아주 애틀란타,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공화당선거자금모금 지원에 나서 이틀사이에 ≪악의 축≫발언을 네차례나 했고 그에 앞서 3월 중순에도 미주리주 오펠린을 방문해서 ≪나는 ≪악의 축≫에 관해 더는 명백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극언했다.

그는 지난 2월4일 플로리다주와 이틀뒤 뉴욕에 가서도 ≪악의 축≫발언을 해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부시가 이같이 ≪악의 축≫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과 세계 공정한 여론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고 이북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방대한 핵무기와 미사일로 세계의 모든 지역을 겨냥하고 인류에게 항시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위협의 장본인이고 테러왕초이며 최대의 불량배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들에 당치 않는 ≪테러≫의 감투를 씌워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것과 같은 강도적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부시가 우리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악의 축≫망언을 계속하는 것은 악의 화신, 호전광으로서의 자기의 흉악한 정체를 더욱 명백히 드러낸 것으로서 힘으로 이북을 제

압하고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저들의 범죄적 기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부시행정부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지난 1월 이북을 비롯해 7개국을 핵공격 대상국으로 지명한 이른바 ≪핵태세검토≫비밀보고서를 국회에서 토의한데 뒤이어 대규모북침전쟁연습까지 감행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부시가 지금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이북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악의 축≫망언을 연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기필코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한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부시의 연속되는 ≪악의 축≫발언과 대북고립압살책동, 북침전쟁책동으로 인해 완화의 조짐을 보이던 북미관계는 다시 악화되고 6.15공동선언이행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으며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무겁게 감돌고 있다.

부시야말로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겨레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안기려는 악의 제국, 악의 화신이며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이다.

호전광 부시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인민군은 그 어떤 침략자들도 일격에 격멸소탕할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민중도 부시호전집단의 북침전쟁 도발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부시는 우리 민중의 반미의지와 현실을 직시하고 무모한 ≪악의 축≫발언과 북침전쟁책동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천용만 - 구국전선
주체91, 4월 11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4월 10일

태양절에 즈음해 축전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태양절에 즈음해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축전은 태양절에 즈음해 **김정일**영도자님께 축하를 드렸습니다.

축전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시원을 열어놓으신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선린관계가 조중사이에 이룩된 합의에 기초해 더욱 발전완성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축전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건강하시고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것과 아울러 이북 민중에게 평화와 행복이 있을 것을 충심으로 축원했습니다.

보안법폐지 수요거리캠페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원회, 범청학련관련 구속자석방대책위원회,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구속자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보안법폐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수요거리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해마다 보안법폐지투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법은 사라지기는커녕 그 피해자인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최근 한총련 대의원들과 범청학련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는 국민의 요구와 흐름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절대다수 국민들은 보안법의 폐지를 바라고 있으며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민족의 화해와 협력, 단결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보안법이 외세에 빌붙어 반인권적 사대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냉전세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F-15K≫ 등 무기구매를 강요하며 전쟁의 위험을 조성하는 미국과 공조해 민족의 협력과 통일마저 거부하고 보안법을 무기로 삼는 냉전세력은 공인된 적이라고 낙인찍었습니다.

단체들은 냉전세력 유지시키는 보안법을 폐지할 것과 양심수석방과 정치수배해제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총련, 연합토지관리계획 후속회담 결과 규탄성명

한총련이 연합토지관리계획후속회담 결과를 규탄해 5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규모와 전력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내걸고 반미여론의 발원지로 되었던 용산미군기지의 이전문제가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매향리폭격장, 파주의 탱크훈련장 등은 부당한 이유로 이전 및 폐쇄가 불가능한 것으로 낙착지어진데 언급했습니다.

성명은 군부세력이 154만평의 땅을 새로 미군측에 넘겨주기로 했을 뿐 아니라 미군기지신설확장에 1조4900억원의 자금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해 했습니다.

성명은 반환되는 경기도지역 미군훈련장 3900평은 30, 50년의 장기간 사용으로 황폐화되어 전혀 쓸모없는 땅이며 이전되는 미군기지 및 신설 대부분이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이라면서 환경오염처리도 사실상 우리가 떠안게 됐다고 분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합토지관리계획은 미국이 한반도군전략변화상 효용가치가 상실된 땅을 반환하고 장기주둔 및 주한미군전면재배치, 미사일방어체제로의 전환, 장기주둔 및 주한미군전면 재배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장이라는 미명아래 강탈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민의 반미여론을 무마하려는 기만적인 책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한미 군부세력의 농간질로 국민들의 자존심과 재산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생존권이 완전히 외면당했다면서 기만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 전면 재협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천미군기지를 비롯한 미군기지 즉각반환을 요구하면서 성명은 우리 땅 154만평 제공을 결사반대했습니다.

성명은 1조4900억원 이전비부담을 반대하고 주한미군은 황폐화된 우리 땅을 원상복구할 것과 한미협상 국방부장관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지적
일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내년도 일본 고교 교과서 최신일본사가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최신일본사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기지를 여전히 싣고 있는 건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신일본사 역사교과서는 또 일제 강점시기 종군피해여성에 대한 기술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는 일본당국에 교과서 검정취소를 요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에 항의방문하는 등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내분 격화될 전망

한나라당 경선후보인 최병렬의원이 이회창을 반대하고 나서 한나라당내분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최병렬의원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회창후보가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어 민주당 노무현후보와 대결할 경우 이회창이 패배할 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와해위기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회창을 배척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겨울을 이겨낸 소나무의 푸르름을 보며 사람들은 한총련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데요. 어찌보면 한총련의 역사는 눈보라를 일쿠며 기승을 부리는 엄동을 물리치며 더 왕성하게 자라는 청송과 같다 하겠죠. 정의와 애국의 단심으로 만난시련을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불굴의 의지, 수배 3년차를 맞는 학생운동가 한모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뜨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편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죠.

보고싶은 어머니

인편을 통해 문안의 편지를 올립니다.

학생회 일로 늦어질 것 같다고 어머니 선잠 곁에서 조용히 이르고 문밖을 나섰던 그날, 다시는 그 문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수배자로 몰려 여기저기로 피해다니는 속에 세월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불효한 이 자식을 꿈속에서나마 안아보며 그 기다림속에 더 늙으셨을 어머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마저 글월에 실어보내야 하는 아들의 마음은 찢어발기는 듯 아프고 쓰립니다.

어머니, 지난 1월 저는 한 일간지에 실린 수배 3년차를 맞는 전 부경총련 조국통일위원장 강정호씨의 할머니의 장례식에 관한 글을 읽고 심적 충동을 금할 수 없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의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눈을 감아도 원이 없겠다던 강씨의 할머니가 그 소원마저 무덤속에 안고 갔다는 글줄을 읽으며 저는 우리 한총련 학우들이 겪는 시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새삼 절감했습니다.

경찰당국의 수사를 피해 온 경향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수배생활의 마음속 고충은 어찌 한두가지랴만 가장 큰 고통은 부모님들이 겪는 가슴 아픈 소식에 접할 때인가 싶습니다.

지난해 가을 한 동료로부터 어머니의 병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은 바람에 나뒹구는 낙엽처럼 한산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1980년 광주봉기때 계엄군에 의해 남편을 잃고 유복자로 태어난 저 하나를 키우며 한뉘 고생속에 살아오신 엄마, 그래서 누구보다 더 강직하신 어머니가 아닙니까.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12살 갓 되던 저의 조막돌같은 손을 이끌고 무등산기슭에 올라 광주천을 바라보며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 ≪사람이 철들었는가를 가름하는 기준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걱정 할줄 아는 마음에 있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도 저의 귓전에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또 떠오르는 시절이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나돌아다니다 밤이 이슥해서 집안에 들어설 때면 왜 그런지 철부지마음에도 어머니앞에 미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죠. 혹 문소리가 어머니가 깨어나시지 않을까 망설이면서 말입니다.

그럴때면 어머니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마치 큰 일하고 돌아온 아들을 반기듯 저를 맞아주셨죠. 그러한 어머니가 투병중에 계신다는 소식을 동료로부터 들었을 때 저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아뢰이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마음속에서 더욱 강렬히 분출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설치는 광주천 푸른물처럼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우리 학생운동권, 특히 저같이 수배생활을 하거나 감옥에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싸우는 학우들을 두고 찔러도 피한방울 안나올만큼 독하고 메마른 인간들이라고 합니다. 개중에는 운동병에 미쳐 부모와의 초보적인 윤리조차 지킬줄 모른다며 저희들을 핀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1998년 한총련대표로 8.15통일행사에 참석했던 황선씨가 판문점분리선을 넘으며 ≪한총련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고 읊은 시구절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라고 떠나간 할머니를 이름으로만 목놓아 부르며 조상하고 중병으로 앓고 계시는 어머니를 편지로만 위로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도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인륜이라 했습니다. 땅을 진동시키는 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다하는 효심이고 세상을 울리는 것이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어찌 가정을 무시하고 부모형제의 운명에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단민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한 부모만 섬기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라 할 수 없습니다. 부모앞에 효도하고 나라앞에 충성하는 길을 오직 투쟁의 길에 있음을 너무도 잘알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한번 선택한 자주, 민주, 통일실현의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꿋꿋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념으로 한총련 6기 의장이었던 손준혁씨는 독립운동에 아들을 내보낸 것 같다며 아들의 장한 활동을 적극 지지해주던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옥중에서도 굴함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로 ***, 이동진 등 백수십명의 수배학생들이 한총련합법화를 요구해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로 높아가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자주, 민주, 통일투쟁기운에 질겁한 민족반역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총련을 말살함으로써 전반적 대중운동을 무력화시킬 속셈밑에 탄압의 예봉을 학생운동핵심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탄압공세는 물리적 폭압에 회유와 협박, 분열공작, 그리고 인간의 고상한 윤리마저 악용한 사상유례없이 악랄하고 교활한 것입니다.

그 탄압한파속에 경인총련의장이었던 김건수씨가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일흔이 넘은 어머니와 신부앞에서 경찰에 의해 팔목이 뒤틀려 끌려갔습니다. 경찰당국은 그렇게 건수씨를 연행하고는 그더러 함께 활동한 사람 단 한명이라도 실명을 거론하면 불구속으로 내보내주어 결혼에 차질이 없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합니다.

아주대 부총학생회장인 최석진씨의 부모님들앞에서는 또 어떤 추태를 벌였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면회하러온 그들에게 다른 한총련 대의원들을 자수하게 하면 아들을 놓아주겠다고 기만했습니다. 생사기로에서 헤매이는 동생의 문병을 온 여학생을 병원에서 머리카락을 쥐여당기며 끌어가고 귀맛좋은 소리로 일부 학생들을 경찰에 자진출석케 하고는 긴급체포한 것 등 민족반역세력이 한총련학우들을 상대로 자행한 짐승도 낯을 붉힐 탄압만행은 헤아릴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미국에는 아부하고 한동족이 사는 저 북에 대해서는 주적이라 고창하며 애국적인 운동권인사들은 국가보안법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의에 과감하고 애국에 열렬해 청춘일진대 우리 어찌 이런 부정의세력, 사대매국세력을 앞에 두고 투쟁의 걸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2년전 민족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그 선언에 받들려 화해와 단합의 꽃물결이 설레이는 한반도의 모습을 보며 7천만 겨레 모두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한 한반도가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압살정책과 민족분열책동으로 하여 6.15공동선언발표이전보다 더 첨예한 행성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밖출입은 비록 못하시지만 방송을 통해 들어 어머니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북에 대해 대량살상무기개발국이니 악의 축이니 하는 갖은 악담을 늘어놓던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최근에는 북을 핵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핵전쟁의 서막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같은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여놓으면서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을 덮씌우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대통령병중환자인 이회창이 청와대입주권을 노리고 부시의 뒤에 줄서기를 하면서 타들어가는 북침도화선에 기름을 부어주는 망동도 서슴없이 강행하고 있는 오늘의 엄연한 현실을 말입니다.

이 역사의 오물들을 쓰레기통에 처넣고 6월선언에 받들려 펼쳐졌던 그 감동의 화폭들을 영원한 화폭으로 펼쳐놓아야 하겠기에, 민중이 심장으로 염원해마지 않는 자주, 민주, 통일의 새아침을 반드시 앞당겨와야겠기에 우리는 투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향이 가장 정의롭고 애국적인 것이기에 각계 민중 모두가 한총련 그 이름 불러 구국의 강철대오, 불패의 애국대오, 백만의 자주대오라며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로 굳게 결집된 한총련이라는 조직이 있고 성심성의로 후원하는 민중이라는 대해가 있습니다.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고 이족단체입니다. 그들을 구하는 것이 곧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고 이 나라를 살리고 구하는 길이라며 한총련학부모협의회를 무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한총련출범식에도 참석하여 내 자식이 교도소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온게 아니라 자식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늘을 두고 떳떳한 마음을 안고 왔다며 학우들을 고무한 정명기 이전 의장님의 아버지 정연오한총련학부모협의회 회장님과 같은 분들의 성원이 있어 우리는 힘이 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 건 그의 정신세계에 매수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정신 똑같이 안고 사시는 여러분은 다 저의 신랑입니다.≫라며 신랑없는 반쪽 결혼식을 치루는 것으로써 경찰당국의 탄압에 항거했다는 김건수씨의 애인 홍은주씨의 이야기 언제나 우리들의 가슴을 울려줍니다.

한총련 최장기 수배자인 진재영씨를 8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지금도 옥중고초를 겪고 있는 그를 기다려 당신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한그루 작은 나무라고 하는 김석정씨와 같은 이들이 있어 우리 마음 든든합니다.

어머니도 그러한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철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주시던 그 모습으로, 성장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생전의 아버지를 만나보곤 한다며 눈물지으시던 그 모습으로 어머니는 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머니 저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요. 언제나 제가 곁에 있다고 여기십시요.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를 때 아들도 그 격동의 현장에서 잘 싸우고 있다고 믿어주십시요.

어머니, 부디 앓지 마시고 귀한 몸 정히 보존하여 주십시요. 그래서 아들의 효성도 담겨져 있는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큰 열매를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 듣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제 범청학련 남측본부 황선대변인의 시 ≪너희는 모른다≫를 이 편지속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언제인가 제가 이 시를 읊어드리자 어머니는 열혈 청년들의 투쟁의지가 그대로 안겨오는 좋은 시라며 눈물까지 흘리셨죠. 그때처럼 아들이 어머니의 심장곁에서 시를 읊어드린다고 여기시고 잘 읽어주십시요.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8일~9일

미제의 살육, 약탈, 파괴행위는 잔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1)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공동백서(4월 2일)

세월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군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살인, 약탈, 파괴행위이다.

산천초목도 분노에 떨게 하는 미군의 이치 떨리는 만행은 세상에 그 유례가 없는 범죄로서 마땅히 조선민족과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사위원회가 조사장악한 미군이 남반부지역에서 저지른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살육행위를 비롯한 만행자료들과 최근 남반부에서 새로 발굴된 자료들 가운데서 그 일부를 묶어 공동백서를 발표한다.

주민들에 대한 야수적 학살만행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전쟁을 도발한 후 공화국북반부지역은 물론 남반부지역들에 대한 야수적 폭격만행을 연일 감행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1950년 7월 5일 남조선 강원도 신탄에 날아 든 4대의 미제침략군 공중비적들은 맹폭격으로 농촌주민 10여명을 살해하고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면 활산리에 날아 든 미군비행기 4대는 산으로 피신하는 주민들에게 20여개의 폭탄을 퍼붓고 기총사격을 가하여 25명을 살해하고 3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7월 9일 당시 전라북도 김제군 용지면(이하 당시 지명)에 날아 든 미군폭격기 4대는 폭탄을 퍼부어 철도노동자 김재근, 황영규 등 170여명의 주민들을 살해하였으며 충청북도 영동군 산익리에 날아 든 2대의 미군비행기는 산으로 피신하는 농민들에게 4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9명을 살해하고 1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에 날아 든 미군전투기 2대는 7월 10일 대장리부근 나무밑에서 젖을 먹이고 있는 여성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현장에서 어린애와 함께 즉사케 하였으며 이날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에 날아 든 3대의 미군폭격기는 수많은 폭탄을 퍼부어 여자 38명, 어린이 48명, 노인 11명을 포함한 151명의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미제공중비적들은 7월 11일 경기도 수원지구에서 주민 15명을 살해한데 뒤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전라북도 이리일대에 대한 야수적 폭격으로 철도공무원 54명을 사살하고 학생과 시민 450여명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였다.

놈들은 7월 12일 충청북도 영동주변의 산에 피신중인 310명의 주민들에게 대형폭탄 10여개를 떨구고 기총사격을 가하여 6명을 살해하고 2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미제공중비적들은 7월 15일, 16일, 19일 세차례에 걸쳐 야수적 폭격으로 경기도 평택지구 주민 77명을 살해하였으며 인천에서는 ≪동양방직≫공장을 파괴하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 밭에서 김매기를 하는 8명의 농민들을 기총소사로 살해하였다.

7월 16일 서울에 날아 든 미군폭격기들은 맹폭격을 감행하여 1096명의 주민들을 살해하고 1201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으며 7000여명의 이재민을 내게 하였다.

7월 20일 전라북도 김제군 죽산면 죽산리에 날아 든 놈들은 폭격과 기총사격으로 농민 200여명을 살해하였다.

7월 25일 미군폭격기 2대는 전라북도 익산군 왕궁면 구덕리 문둥병환자수용소에 기총사격을 가하여 환자 6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여러대의 미군전투기가 충청북도 청주에서 김을 매고 있던 농민과 길가에서 놀고 있던 어린 학생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5명을 살해하고 8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7월 25일부터 4일동안 미제는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 철길 및 쌍굴다리에 700여명의 주민들과 피난민들을 몰아 넣고 기총사격으로 300여명, 폭격으로 100여명을 살해하였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파주군에 날아 든 미군비행기의 폭격으로 63명이 사망하고 57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남조선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미군의 폭격으로 농민 이수영 외 3명, 노동자 김학환의 아내 24살 증매자와 그의 아들,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던 16살 김성숙과 목욕하던 그의 동생 11살 김영숙, 인민학교 학생 8살 이기훈도 미군비행기의 기총소사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되었다.

미제공중비적들은 7월 30일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강외인민학교에 여러개의 폭탄을 투하하고 교실에서 뛰어나오는 학생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학생 5명을 살해하였으며 19명을 부상시켰다. 그리고 8월 초 충청북도 청주시에 날아 든 미군전투기는 주변농촌상공을 저공비행하면서 산으로 대피하는 농민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12명을 살해하고 11명을 부상입혔으며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에서는 소이탄 투하와 기총사격으로 30여명의 농민들을 살해하였다.

7월 31일 경상남도 사천군 곤명면 마곡리 하천제방에 피난을 나와 점심을 먹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군전투기 5대가 갑자기 달려 들어 약 30분간에 걸쳐 폭격과 기총사격을 가하여 강남덕의 아버지와 3명의 동생 등 13명을 살해하고 8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8월 2일 전라북도 김제군 광활면에 날아 든 미군전투기 26대는 논밭에서 김을 매고 있던 농민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농민 2명과 가정부인 1명을 살해하고 처녀 1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인천시 부평에 날아 든 미군전투기들은 소이탄을 떨구어 주택지구에 불을 지른 다음 불을 끄려 동원된 군중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11명을 살해하고 1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또한 이날 경상남도 사천군 곤명면 조장리에 날아 든 미군폭격기 4대는 피난 가던 주민 약 300명에게 폭격과 기총사격을 가하여 150여명을 살상하였다.

8월 3일 미군전투기 2대는 인천시 용현동 선창에서 떠나려고 하는 여객선에 기총사격을 가하여 여자 4명을 포함한 14명의 여객을 살해하였으며 대구쪽에서 날아 든 미군비행기 2대는 대전시 신안동거리를 걸어 가던 시민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3명을 즉사시키고 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또한 이날 미군전투기편대는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망경동 등의 주민 수백명이 대피한 주약동 약골의 진치령 굴에 대한 2차례의 폭격에 이어 다음날 오후 5시에 또 다시 나타나 저녁을 먹으려던 피난민들에게 폭격과 기총사격을 가하여 50여명을 사살하고 5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한것으로 하여 굴안에는 떨어져 나간 사람의 팔과 다리들이 널려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8월 4일 인천시 석남동에 날아 든 미군전투기 3대는 집을 잃고 다리밑과 오막살이에서 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52명을 살해하고 1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날 경기도 고양군에 날아 든 공중비적들은 참외를 팔고 있는 상인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3명을 살해하고 44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봉산리에 여러개의 폭탄을 떨구어 15명의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8월 5일 미군폭격기 8대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날아들어 무차별폭격을 가하여 3개의 동을 완전히 불 태우고 153명의 시민들을 살상하였다.

8월 6일 미군전투기 2대는 전라남도 광산군에 날아들어 도선장에서 나루배에 탄 주민 10명을 기총소사로 즉사시키고 5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상갈리에 날아든 미군전투기 2대는 길가는 행인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3명을 살해하고 6명에게 부상을 입히였다. 이날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당리에 날아든 미군전투기는 당시 12살 강가매 어린이가 아침밥을 먹고 놀러 간 사이 그의 집과 이웃집들에 폭탄을 떨구고 기총사격을 가하여 집에 있던 강가매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가족 4명을 즉사시키었으며 이웃에 있던 임신부여성이 폭격으로 놀라 죽은 아이를 낳고 그후 그도 죽게 하였다.

8월 7일 남조선 강원도 영월군 영월면과 전라북도 전주시 하천일대와 진북동, 고사동 등지에 날아 든 여러대의 미군전투기들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기총소사로 강가에서 빨래하던 부녀자들과 목욕하던 아이들을 비롯하여 373명의 주민들이 살상되었다.

이날 오후 1시경 경상남도 마산시 진전면 진목리 진목마을 상공에 날아든 미군전투기의 폭격과 기총사격으로 황맹성 외 4명이 살해되고 황근성 외 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8월 8일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면 신흥동에 날아든 미군전투기들은 일터로 나가는 김종록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팔에 부상을 입히고도 성차지 않아 그가 대피한 집에 폭탄을 퍼부어 집을 완전히 파괴하고 김종록과 그 집에 있던 사람 4명을 살해하였다.

8월 9일 미군폭격기와 전투기 20대는 서울시 서대문구 연초공장상공에 날아들어 작업중인 노동자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11명을 살해하고 39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서울시 용산구 상공에 날아든 미제공중비적들은 여성상인 4명을 살해하여 젖먹이 어린애가 피 흘리며 쓰러진 어머니의 젖을 찾으며 애처롭게 울게 하는 비참한 사실까지 산생시켰다.

8월 10일 인천시 신흥동에서는 그전날 폭격으로 불타고 있는 주택들에 대한 불끄기작업에 동원된 주민들에게 미군전투기 8대가 달려들어 기총소사로 13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히었으며 경기도 용인군 용인면 남리에서는 길가는 사람들에게 수백발의 기총사격을 가하여 12명을 살해하고 연이어 이 군 이동면 천리(무내미고개)에서 7명을 살상하였다.

이날 충청북도 충주군 충주면 하담리에 날아 든 미군전투기 4대는 하담리 인민학교교사에 기총사격을 가하여 수업중이던 교원 변윤수, 학생 김경환을 비롯한 수많은 학생들을 살상하였으며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용산중학교를 폭격하여 204명을 살해하고 24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또한 이날 경상남도 마산시 진전면 곡안리에 날아 든 미군전투기는 뒤산에 피난한 100여명의 주민들을 향하여 기총사격을 가하여 80여명의 주민들을 살상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9 ~10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4월 10일

공산주의혁명투사 최현 서거 20돐 중앙추모회

공산주의혁명투사 최현 서거 20돐 중앙추모회가 1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추모회에는 당 및 국가 지도간부들과 성, 중앙기관일군들, 인민군장병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일철차수가 추모사를 하였다.

그는 최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선군사상의 기치 따라 한평생 총대로 주체혁명위업을 굳건히 받들고 영용하게 싸운 조선혁명의 원로이며 백전로장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일찌기 손에 총을 잡고 혁명의 길에 나선 최현은 주석을 충직하게 받들어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사에 빛나는 업적을 기록한데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광복후 최현은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정규무력건설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사단장, 군단장으로서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전후에는 당과 국가, 군대의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최현의 생애는 수령과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총대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한 선군혁명투사의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한생이였다.

그의 혁명적생애와 투쟁업적은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군건설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오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충직하게 받들고 보좌한것으로 하여 더욱 숭고하게 빛나고 있다.

일찌기 백두광명성의 탄생을 민족의 대경사로 맞이한 때로부터 **김정일**령도자를 주체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 나가실 시대의 향도성으로 높이 받들어 온 최현은 그이의 령도를 군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참으로 그가 걸어 온 혁명활동의 전 로정은 수령과 전사, 령도자와 전사사이에 믿음과 충성, 사랑과 보답으로 이어 진 혁명가의 참된 삶의 길이였다.

추모사는 모두가 **김정일**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에서 휘날린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 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아가자고 강조하였다.

최현의 반신상에 화환

공산주의혁명투사 최현의 서거 20돐을 맞으며 10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있는 그의 반신상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보내신 화환이 반신상앞에 놓여 있었다.

화환진정에는 김일철, 최태복, 양형섭, 김기남, 리종산과 당,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유가족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인민무력부, 성, 중앙기관, 출판기관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다발들이 최현의 반신상에 진정되였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앞두고 들끓는 평양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앞둔 평양은 지금 환희로 들끓고 있다.

해마다 진행되는 행사이지만 이번 축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는 해에 막을 올리게 되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수도의 거리들에는 곳곳에 공화국기와 축전기, 무리기들이 나붓기고 5대륙의 친선사절들을 맞이하는 환영 구호들과 대형그림판들, 장식물들이 설치되고 있다.

도처에 나붙은 다양한 주제의

선전화들이 또한 축전분위기를 돋구고 있다.

준비를 끝낸 만수대예술극장, 평양대극장, 봉화예술극장 등 시내 극장들이 축전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만경대와 주체사상탑, 개선문,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 많은 참관대상지들과 호텔들도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

축전참가자들은 세기의 걸작으로 창작 완성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도 관람하게 된다.

자주, 평화, 친선의 정을 안고 찾아 오는 예술사절들은 축전도시 평양에 도착한 순간부터 조선인민의 뜨거운 환대속에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될것이다.

지금 수도 평양의 하늘가에는 인류의 태양,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와 칭송의 송가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행사들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9일 농업근로자들의 《태양의 노래》모임이 만경대혁명사적관 앞마당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는 출연자들의 절절한 이야기와 함께 태양칭송의 노래들이 울려 나왔다.

이날 평양미술축전 조선민족옷전시회가 개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중앙과 지방의 의상미술도안가들과 애호가들이 창작한 1, 000여점의 의상도안들가운데서 우수하게 평가된 도안들로 만든 150여벌의 조선민족옷들이 전시되여 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9돐,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청년군인 웅변대회가 진행되였다.

국방위원장추대 9돐 경축 행사들 진행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9돐에 즈음하여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농근맹중앙위원회 승상섭위원장의 경축연설과 농업근로자들의 예술소품공연이 있었다.

이날 녀성회관에서는 녀맹원들의 시, 노래모임 《우리는 선군시대에 산다》가 진행되였다.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독시 《장군님은 우리앞에 서계신다》, 중창 《조선의 메아리》, 시와 합창 《동지애의 노래》, 대화시 《우리의 가풍》 등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다함 없는 감사와 끝 없는 경모의 정을 가슴 뜨겁게 보여 주었다.

9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된 전국로동자예술소조종합공연에서 출연자들은 **김정일**령도자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받들고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가는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과 랑만에 넘친 모습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9일 저녁 나라의 각지에서 청년학생들의 야회와 인민보안성 청년전위들의 야회가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려는 청년전위들의 드팀 없는 신념과 혁명적기상을 힘 있게 과시하였다.

높아 가는 《아리랑》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

조선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지난 3월 5일 근 20개단위 대표들로 무어 진 중국(홍콩, 마카오)관광고찰단으로부터 시작하여 한달 남짓한 기간안에 14개 나라에서 50여개의 관광 고찰단, 대표단, 기자단이 련이어 평양을 다녀 갔다. 조선체류기간 그들은 풍치 아름다운 대동강 릉라도의 5월1일 경기장에서 종합련습중에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일부 장, 경을 관람하고 여러 관광지들을 돌아 보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조선에서만 창작할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면서 출연자들의 뛰여 난 예술적재능과 강한 조직력에 탄복하였다. 그리고 거대한 경기장의 립체적공간속에 황홀한 신비경을 펼쳐 놓게 될 이 공연을 보지 못하면 일생 후회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돌아 가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와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고통련조직들 행사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국제고통련과 우즈베끼스딴고통련의 주최로 4일 따슈껜뜨시에서 기념집회와 사진전시회 등이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국제고통련 명예위원장 석명손, 우즈베끼스딴고통련 위원장 백영진, 우즈베끼스딴 조선인로병위원회 위원장 황성복을 비롯한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집회장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초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드리였다.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고통련산하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라는 주제의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 보았다.

로작을 방글라데슈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의 사회주의이다》를 2일 방글라데슈조선친선협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주체83(1994)년 4월 16일에 발표된 이 로작에는 조선의 사회주의는 모든 문제를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 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이라는데 대하여 밝혀 져 있다.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 6.15선언지지, 미군철수 국제적서명운동에 참가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이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기간에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국제적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은 6만 5,000명의 당원들을 대표하여, 따쥐끼스딴 **김정일**장군명칭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2만 5,300명의 주체사상신봉자들과 공청원들을 대표하여 서명문에 각각 수표하였다.

또한 수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위쌀 파르하 바그다쉬와 단마르크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 욘 피터슨이 자기 당을 대표하여 서명문에 각각 수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은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초석이다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4월 10일

민족최대의 뜻 깊은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사에 새로운 장이 수 놓아 지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맞이하게 되는 올해의 태양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숭배심이 용암처럼 솟구쳐 오르게 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민족최대의 명절을 맞으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으로 가슴 불 태우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여 나갈 결의에 넘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 같은 열망입니다.≫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태도는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과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고 구현해 나가는가 하는데서 표현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국건설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여 나가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시켜 나가고 계신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절세의 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새 세기의 진군길에서 더욱 빛을 뿌리게 하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 같은 지향으로 되고 있다.

뜻 깊은 태양절이 가까와 오는 지금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건국의 어버이,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재생과 번영의 력사도,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현실도 이 력사의 날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과 같이 위대한 력사와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신 만고절세의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다.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려는 전당, 전군, 전민의 드팀 없는 신념과 의지로 하여 올해의 태양절은 수령숭배의 마음이 뜨겁게 굽이치는 대정치축전으로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은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초석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빛나는 선견지명으로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하여 우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백전백승의 위용을 떨치는 당과 군대, 위력한 혁명정권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인 주체의 혈통도,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도,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도 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해 놓으신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업적은 그 내용의 심오성과 폭에 있어서, 인민의 운명개척과 혁명투쟁발전에 미친 영향력과 변혁의 크기에 있어서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위대한 업적이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계승하고 구현하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은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 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 있다.

자주는 혁명승리의 원동력이다. 자주적대가 굳건하지 못하면 혁명은 좌절과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되며 민족의 존엄도 지켜 낼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전 기간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제 정신을 가지고 제 힘으로 혁명을 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우리 인민을 사대와 굴종에서 완전히 벗어 난 자주성이 강한 인민으로 키우신것은 수령님의 최대의 업적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이 그 누가 뭐라든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 나가고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은 우리의 사상과 리념,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건설하는 자주의 강성대국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계승하고 구현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자기 힘에 대한 확신, 모든것을 제 힘으로 끝까지 해내려는 드팀 없는 신념을 깊이 심어 줄수 있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사상과 로선, 우리의 원칙을 굳건히 지켜 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날로 로골화되는 제국주의의 도전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나갈수 있게 하는 튼튼한 토대이다.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넘어 졌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의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붉은기를 고수해 올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부강조국건설의 토대가 있었기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서 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모든 토대를 당대에 마련하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수령님의 로고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이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서 우리 인민이 제 힘으로 살아 나갈수 있는 중공업과 경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고 세기를 이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나갈수 있는 밑천이 이룩되게 되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토대로 하여 일떠서는 강성대국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은 강성대국건설의 밑뿌리이며 국보중의 국보이다. 우리 인민과 같이 선대수령으로부터 조국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재부를 유산으로 넘겨 받은 긍지 높은 인민은 세상에 없다.

격동하는 오늘의 21세기에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전통이 있고 그것을 일관하게 계승하고 구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명맥은 끄떡 없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초석으로 일관하게 틀어 쥐고 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할것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나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행복만을 누려 온 우리에게 있어서 수령님의 뜻과 구상을 실현해 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사업은 없다.

강성대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고 념원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우리 나라를 모든 면에서 국력이 강하고 인민들이 잘 사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에는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분야의 과업으로부터 대외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지침과 구체적인 과업들이 명시되여 있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가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처럼 심혈을 기울이신 인민생활문제를 푸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덕을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혁명이 전진하여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일관하게 틀어 쥐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여기에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는 길이 있고 수령님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는 길이 있다.

우리는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력사는 총대로 혁명을 개척하고 전진시켜 오신 영광 선군령도의 자욱으로 빛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결전장에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혁명을 시작하시고 한생을 제국주의와의 투쟁속에서 보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을 령도하여 오신 전행정에서 총대중시, 군사중시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오시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이 혁명업적을 토대로 하여 완성된 정치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 건군 70돐을 맞으면서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의 선군혁명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선행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하며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적군인정신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기 위한 전 사회적 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확고히 실현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의 길만이 날로 횡포해 지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고수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죽으나 사나 선군로선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숭배자가 되여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위대한 수령님식대로 풀어 나가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식대로 해나가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계승하고 구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철학을 배우고 승리의 비결을 체득한 긍지 높은 군대이고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전략전술, 령도방법은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보검이다. 이 보검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우리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진군길을 더 빨리 다그칠수 있으며 백승의 위력을 떨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은 우리 식이고 주체식이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보다 더 좋은 혁명방식은 없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시고 의도하신대로 풀어 나가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의 전 기간 보여 주신 령도의 귀감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따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인민을 선생으로 내세우시고 늘 인민들속에 들어 가 인민과 고락을 같이 하며 대중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수령님의 령도풍모를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결히 고수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펼쳐 주신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조국번영을 위한 거창한 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여 나가고 있다.

(13면에 계속)

조국통일위업수행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제10회)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4월 10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전시간에 주체의 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영도업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국통일위업수행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겹쳐드는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시며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과 민족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0성상 민족분열의 비운을 끝장내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 것을 다 바치어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위업 수행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하시어 통일의 3대기둥을 튼튼히 세워주시고 온겨레가 나라의 통일위업을 확신성있게 실현할 수 있는 필승의 보검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시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입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고히 견지해야할 근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국통일 문제해결의 기본초석이며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전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주체를 튼튼히 꾸려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헌장입니다. 그리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통일의 근본방도, 조국통일운동의 최종목표를 밝힌 ***입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근본원칙과 전략적 방도들을 완벽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출발점으로 되는 기본원칙과 통일문제해결의 전략적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완성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통일위업수행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할 백전백승의 지도적 지침으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서 조국통일3대헌장이 마련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3대기둥이 튼튼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통일조국건설의 굳건한 기둥으로써 통일위업을 가장 빨리, 가장 이상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올바른 통일강령입니다. 그것은 조국통일3대헌장이 전체조선민족의 한결같은 통일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민족의 자주정신과 애국애족의 뜨거운 열기를 구현하고 있는 전민족적인 통일강령이며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는 엄연한 현실과 전민족적인 통일운동발전의 합법칙성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과학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강령이기 때문입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북과 남의 현존하는 제도와 사상, 정견과 신앙을 초월해서 전민족의 통일의지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이념에 기초한 조국통일실현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원칙과 전략, 방도와 방식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통일3대헌장은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이건 자산계급이나 종교인이든 그가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접수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조국통일대강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신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고 통일위업수행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불멸의 업적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온 민족을 묶어 세우시어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역량이 비상히 강화되고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의 애국적 통일역량이 급격히 장성했으며 북과 남, 해외의 절대다수 민족성원들이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결속됨으로써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적 역량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역량이 반석같이 다져졌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추진되어 온 나라가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철벽의 요새로 전변되고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 이룩되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의 현실로 펼쳐진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주체적 혁명역량의 백전백승의 위력의 원천이며 원자탄보다도 더 위력한 정치적 역량입니다.

수령, 당,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일심단결의 역량으로 전변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적 역량의 위력이 높이가 있으며 조국통일역량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온 사회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화국은 사상의 강국, 정치대국, 군사강국으로 자기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그것으로 해서 미제와 국제반동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최악의 조건에서도 끄떡없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역량과 함께 남조선과 해외의 애국적 통일역량도 전례없이 급속히 강화되었습니다.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각층 군중을 자주의식화하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그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이 높아지게 되어 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게 되었습니다.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속에서 통일애국역량으로 장성강화되었고, 해외에서도 광범한 동포대중이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결속되었습니다. 총련을 본보기로 해서 1970년대서부터 아메리카주와 유럽지역나라들에서 해외동포조직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말 19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범민련조직들이 무어졌습니다. 해외동포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는 나라들에는 재일조선인평화협회, 재중조선인총연합회,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 카나다조선인연합회와 같은 조국통일을 지향한 대중조직들이 새로 출현해서 동포대중속에 뿌리를 박았습니다. 구름처럼 흩어져 있으면서 제각기 자기 조직을 묻고 산발적으로 활동하던 해외동포들이 이렇게 나라별, 지역별 조직에 통합결속되게 되면서 해외에 힘있는 조국통일역량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분열된 조국을 하나로 통일할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원칙과 방법뿐 아니라 통일된 후 연방국가의 참모습과 양양한 전도에 대해서도 뚜렷이 밝히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은 분열된 조국을 통일할 주체일 뿐 아니라 통일된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건설해 나갈 직접적 담당자입니다.

남조선과 해외에서 통일애국역량이 장성한데 기초해서 북과 남, 해외 통일애국역량의 연합조직인 범민련과 범청학련 등이 결성돼서 7천만 우리 민족의 통일역량은 민족대통일전선의 기치밑에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튼튼히 결속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북과 남, 해외의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이 튼튼히 꾸려짐으로서 미제와 분열주의 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 위업을 믿음직하게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역량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 수행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3대헌장과 강력한 주체적 역량을 마련해 주신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역사적인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전취물이며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넘겨주신 고귀한 유산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고귀한 유산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 줄 튼튼한 토대로 될 뿐 아니라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분열된 조국을 하나로 통일할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원칙과 방법뿐 아니라 통일된 후 연방국가의 참모습과 양양한 전도에 대해서도 뚜렷이 밝히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은 분열된 조국을 통일할 주체일 뿐 아니라 통일된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건설해 나갈 직접적 담당자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실현의 튼튼한 토대는 그대로 통일된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재부로 됩니다.

이 튼튼한 밑천에 의거해서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면 우리 나라는 7천만 인구에 무진장한 자연부원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21세기의 강국으로써 온 세상에 위용을 떨치게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일성**민족으로써의 존엄과 영예를 온 누리에 자랑 떨치게 될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세계의 자주화위업 수행의 불멸의 공헌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도업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통일을 배워보자

시민사회단체, 다양한 통일강좌 개최

아는 것이 힘!

통일을 준비하며 통일에 대해 배워보자는 취지로 시민사회단체들의 통일강좌가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최하는 통일강좌는 소속회원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북사회와 지도자에 대한 이해, 국제관계에 대한 고찰, 남북관계 전망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민주노총은 ≪민족 21≫과 함께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노동자 통일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6.15공동선언 이후 급상승하는 노동자들의 통일의식에 발맞춰 북녘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민족대단결 의식의 함양을 위해 통일강좌를 마련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통일교실≫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에 열리며 연 12회로 구성되어 있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지난 9일부터 민족화해아카데미 ≪통일교육 시민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96년부터 진행해 왔던 경실련 통일협회의 민족화해아카데미는 이번이 13회째로 지금까지 7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는 등 민간통일교육의 전형을 만들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13기 민족화해아카데미는 시민,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15강으로 진행되며, 박재규 전통일부 장관, 시사평론가 유시민씨의 강연과 함께 사진작가 이시우씨와 함께 하는 도라산역에서 판문점까지의 평화기행까지 준비되어 있어 참가자들에게 통일에 관한 폭넓은 인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통일운동을 주도해 오고 있는 통일연대 역시 4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종로성당에서 통일강좌를 개최한다.

통일연대는 국제정세, 북의 정치체제와 주민생활, 경제전략과 남북경협 등의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통일강좌를 통해 이북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의 해법을 찾는 기회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생각이다.

한편, 지난 1월 26일 전대협동우회가 통일운동의 일상화와 대중화를 위해 설립했던 ≪통일교육문화센터≫는 이 달 18일 김남식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강연을 시작으로 6월 8일까지 총 10강으로 정기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4/11

겨레끼리 축하엽서 보내자

금강산연대, ≪금강산사랑우체국≫ 추진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금강산사랑연대)는 11일 오전 9시 30분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에 엽서와 생필품을 보내기 위한 ≪금강산사랑우체국≫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첫 사업으로 이남의 월드컵축구와 北의 아리랑 축전을 축하하는 ≪겨레끼리 축하엽서 서로 보내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김규철 상임 집행위원장은 ≪금강산사랑우체국≫ 개설과 관련해 ≪현재는 개별적인 대북지원과 범국민적 차원의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금강산사랑우체국≫을 통해 이를 위한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금강산사랑연대에 대한 일부의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금강산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금강산에서) 통신의 교류도 이뤄졌으면 하는 취지≫로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최측에 의하면 ≪금강산사랑우체국≫은 ≪겨레끼리 축하엽서 서로 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북측에 엽서와 생필품을 보내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산가족의 통신교류까지지도 계획하고 있다.

엽서 보내기 운동은 국민들이 북측에 보낼 엽서를 모아 금강산으로 나른 다음 북측에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과 금강산 관광객이 금강산 현지에서 북측에 엽서나 생필품을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또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지정기탁물 보내기는 금강산사랑연대가 전국에서 농협상품권과 현물.현금 등을 모은 후, 북측의 실명주소에 기탁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엽서와 지정기탁물은 5월 19~24일 서울~강원~설악~금강산으로 이어지는 ≪평화카라반(Caravan)≫ 행사를 통해 엽서와 성금, 생필품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지방순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참여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주최측에 의하면 ≪금강산사랑우체국≫은 오는 5~6월에 금강산에서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에 앞서 금강산에 우편함과 임시 사무실을 둘 계획이고, 이를 위해 기자회견 이후 남북당국, 그리고 현대아산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월드컵축구-아리랑에 대한 각자의 축하메시지가 적힌 축하엽서를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들어 보이며 마무리됐다.

한편 남북당국, 그리고 현대아산과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주최측은 ≪2~3주전 현대아산과 이 문제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상의를 한 적은 있으나, 남북당국간의 사전 상의나 협의는 아직 없다≫고 답변해, 이후 평화를 위한 관광지 금강산이 통신교류의 장이라는 새 역할을 하게 될지 그 추이가 주목된다.

송정미기자
통일뉴스 2002/04/11

(12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의 담력과 의지를 지니시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나날에 강의한 의지로 모든 시련을 뚫고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여 주시였다.

전선에서 전선으로 공장에서 농촌으로 끊임없이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길은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변시키며 **김일성**민족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오신 불멸의 혁명실록으로 수 놓아 져 있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강계정신과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게 되였으며 온 나라에 선군시대의 새 기상이 약동하고 강성대국건설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게 되였다. 선군의 기치 따라 강성대국건설의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 놓으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력사적공적으로 빛나고 있다.

뜻 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건국의 초행길을 걷던 그 불 타는 애국의 열정으로, 전후 재더미우에서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우던 그 견인불발의 의지로 강성대국건설의 총 진군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 라남의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자기앞에 맡겨 진 혁명과업을 어떻게 하나 제 힘으로 수행해 나가는 완강한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전력공업과 석탄공업, 철도운수와 금속공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감자농사와 양어, 가금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차례지게 하며 대규모토지정리와 국토관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과학과 기술로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해 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어버이수령님 탄생 90돐을 맞으며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선전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줄기차게 벌려 나가야 한다. 당사상사업의 모든 화력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선전에 집중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전 인민적인 사상감정이 온 사회에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현지지도단위들을 통한 당과 수령의 령도업적선전을 짜고 들어야 하며 현지지도단위들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기발을 들고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업적과 전통을 계승하고 구현해 나가는 우리 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모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뜻 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힘 있게 떨치자.

(끝)

국민 과반수, 아리랑 ≪관람 의향 있다≫

통일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수(58.1%)가 ≪아리랑공연≫ 관람이 허용될 경우, 관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주목을 끈다.

11일,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 8~4. 10일까지 전국의 만20세 이상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특사방북 성과 및 대북정책 추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또,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2/3(66.7%)가 특사방북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성과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36.5%), 한반도 긴장완화(17.4%), 중단된 당국간 회담재개(16.4%) 등으로 나타났다.

북측의 식량 · 비료 지원요청에 대해 일부의 ≪퍼주기≫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61.8%)이 현재 수준 내지는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현재 대북지원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론조사 결과에는 국민 대다수가 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면서(73.5%), 차기정부에서도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82.6%)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아리랑≫ 총연습장면

이외에 응답자들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철도 및 도로 연결≫(44.5%)을 들었으며 남북군사당국자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56.7%)을 들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긴장완화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표준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32 이다.

송정미기자
통일뉴스 2002/04/11

미, ≪노무현 길들이기≫로 들어간다

미국은 이제 ≪포스트 김대중 시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처 내다보지 못한 ≪노무현 돌풍의 출현≫으로 그간 ≪이회창 대세론≫에 안주하다시피 했던 미국의 향후 대한정책 구상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로써 차기 정권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것임을 뜻한다.

그 중심에는 자신이 원하는 세력의 옹립을 위한 대선 개입이라는, 현재의 한국 정치 의식수준과 환경에서는 다소 무리한 정치공작 대신, 그에 비해 비용과 위험부담이 보다 적은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이 기획, 추진될 것임이 예상되고 있다.

포스트 김대중 시대의 불확실성 제거 노력

지난 4월 4일 워싱턴의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행한 미 국무부 동아시아 · 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켈리의 한국 대선 관련 발언은, ≪노무현 돌풍의 장래≫에 대한 미국의 관찰과 주의가 어떤 관심아래 진행되고 있는지의 일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민주주의의 예측 불가능한 발전궤도≫라는 표현을 통해, 한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국이 직면하게 될 지 모를 전혀 새로운 정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의 논지에는, 한반도 남쪽의 정세변화가 미국의 입장에 어떤 도전을 가해올 것인지에 대해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시정권의 긴장된 인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 변화가 한반도 내부에 설치된 미국의 군사적 기반을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다.

외견상 문맥으로만 보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개혁의 열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대한정책의 골간을 차기 정권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정리해나가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변화의 내면에 존재하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이의제기의 움직임,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한-미 관계의 재설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경계선을 매우 분명하게 긋고 있다. 그는 이북이 한국과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전제하고, 지금까지 기정사실로 되어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국의 차기정권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평가하기를 요구하는 분위기를 그의 발언에 담은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제임스 켈리의 발언은 한국 내부의 정세변화가 최종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사안이 다름 아닌 미국 문제임을 새삼 일깨우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한국의 안보와 발전에 주한미군이 감당한 공헌≫에 주목해야 함을 환기시키면서 향후의 한-미 관계의 기본은 여전히 이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해주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의 근간에 대한 이의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셈인 그의 발언은 차기정권의 대미 노선에 대한 중대한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도 미국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

노무현 진영으로서는 한국 정치/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이러한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고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길들이기 일차 작업의 신호가 올려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진영의 대미 자주성의 정도가 어느 수준에 이를 것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는 차원에서, ≪노무현도 미국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의 질문의 대한 대답이 마련되어야 하는 대목이다.

그간 미국에 대한 반감과 자주의식이 적지 않게 고양되어온 상황에서, 노무현의 대미 자주성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경우,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주도권을 민족적으로 장악해 가는 일에 중대한 결함을 가지게 된다. 미국 문제만 나오면 대체로 ≪패배주의적 발상≫에 사로잡히고 있는 한국 정치권의 현실 속에서, 민족적 자존의 회복을 내세우다 미국이 때리면 도리어 대중의 지원을 받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특히 대미 관계와 관련한 냉전세력의 공세에 다소 궁색하게 수세적 방어에 치우쳤던 그의 입장과 논리가 보다 진전된 지점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노무현 역시 미국의 의사에 굴종적/굴욕적 처신을 하는 인물이 되고 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도 내부의 냉전세력을 포함한 미국의 ≪노무현 길들이기 전략≫에 대한 대응이 주도면밀하게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내세운 발언을 함으로써 노무현은 주한미군 철수 논쟁의 창끝을 일단 피해가기는 했으나, 한반도 평화와 자주, 그리고 통일의 대계(大計)를 놓고 논의가 보다 정교해지게 될 경우, 여전히 이 입장을 일관해서 고수할 것인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의제기는 지금의 시점에서 다소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의 ≪종속적 동맹체제≫가 민족문제 해결에 장애로 작용하는 상황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경험한 이상, 미국의 적대적 군사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기관의 존재를 그대로 두고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자신 나름의 새로운 구상도 없이 미국의 기존 패권전략을 ≪이의 없이≫ 수용하는 자세로서는 한반도 내부의 민족사적 전환기를 감당하는 중차대한 지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역량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의 미래≫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득력 있고, 계획성 있는 논리와 구상으로 정리해나가는 작업 없이는 노무현의 등장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해진다. 노무현 진영이 주한미군을 한반도 안보의 필수 불가결한 뇌관으로 이해하는 한, 냉전체제 극복의 민족전략은 미국의 패권전략에 부차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한반도 남쪽이 미국의 군사기지로서의 위치를 가진 식민지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막히고 만다. 이로써 미국의 ≪노무현 길들이기≫가 완성되는 것이다.

. . .

오늘날, 한국 정치의 요동치는 변화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의 하나는, 외세의 지배장치 역시 하나씩 해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해체의 공간에 민족자존을 지켜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땅의 평화와 자주, 그리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민족 번영과 동북아시아의 활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는 저력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노무현 길들이기≫에 대한 대응은 대미 외교의 새로운 스타일과 자세를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세계정세 변화는 대응하기에 따라, 대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여유를 가지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뒷받침할 만큼 우리 사회 내부에 대미 자주성의 역량 또한 상당히 자랐음을 확신할 일이다.

물론 너무 낙관한 일은 아니나 이러한 노력이, 지난 시기 동안 우리의 정치를 지배해왔던 패배주의적이고 종속적인 대미 관계의 대세적 틀을 깨고 민족의 활로를 파격적으로 뚫어내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웅 재미언론인
프레시안 2002/04/10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발족

≪자사의 이익을 고려해 편리하게 편집된 사실, 부분적 진실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하면 언론보도와 유언비어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한 언론학 교수의 지적은 ≪오염된 사실≫을 창조하는 수구언론이 가슴에 담아야 할 말이다. (선감연 ≪선거보도 신문모니터보고서≫ p18.)

4월 11일 오전 11시에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02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약칭 선감연)≫ 발족식≪사진≫이 열렸다. 총 69개의 시민단체가 결집한 이 회의는 올해 대선과 지자체, 양대선거를 맞이하여 ≪비판과 수렴≫을 기본정신으로 삼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지향하고 있다.

사업방향으로는 보도결과에 대한 수동적인 모니터가 아닌 능동적인 보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질높은 선거보도의 감시와 유도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매체별 모니터 팀과 시민감시단이 활발한 모니터 활동을 할 계획이며, 이의 법적 자문과 지원을 위해 불공정선거보도시민고발센터가 설립되었다.(소장 안상운 변호사)

선감연의 공동대표로는 김용백(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성유보(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송두환(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씨가 위촉되었다.

또 집행위원장은 김동민(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한일장신대 교수)씨가, 모니터국장은 최민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씨가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선거보도 신문/방송 모니터보고서에서 선감연은 최근 선거보도가 획일적인 비판보도에서 벗어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한편으론 조선, 중아, 동아일보 등의 수구족벌언론의 왜곡 형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에 대한 비판감시가 선감연의 주된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정객원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11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6)

차 례

(1)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

(2) ≪악의 축≫ 폭언이 노린 세 가지 목표

▶(3) 곤경에 빠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

(4) 미국은 결국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3) 곤경에 빠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 -2

그렇다면 지금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화운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 위대한 운동은 본시 하나의 뿌리인 민족주체역량에서 발생되고 전개되는 것이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두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갈래의 운동은 북(조선)의 반제혁명전략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혁명투쟁이다. 북(조선)의 반제혁명은 1930년대에 시작되었던 **김일성**주석의 항일혁명에 그 역사적 근원을 두고 있다. 일제 식민지시기에 **김일성**주석이 영도했던 항일혁명은 일제 관동군의 침략무력에 맞서 싸우는 간고한 혈전을 벌였고,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도하고 있는 당대의 반제혁명은 미 태평양사령부 휘하의 방대한 무력과 대치하면서 첨예한 반제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1930년대이후 지난 70년동안 한(조선)민족이 전개해오고 있는 반제혁명은 자주의 기치를 따라 전진하였다. 항일혁명전선에서 반제자주의 총성이 울렸던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 한(조선)반도의 정세가 몰라보게 바뀐 지금, 북(조선)의 반제혁명은 새로운 정세에 조응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새로운 반제혁명전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이다. 선군혁명전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민군대를 혁명과 건설의 최전선에 앞세우고, 온 나라가 군사를 중시하며, 반제혁명무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부시는 북(조선)이 인민을 굶기면서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북(조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군혁명의 간고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물음은 북(조선)은 왜 잘 먹지도 잘 입지도 못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려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은 주한미군사령관 토머스 슈워츠(Thomas Schwartz)의 발언에서 얻을 수 있다.

최근에 토머스 슈워츠가 발표했듯이,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 병력 80만명을 지휘하고 있으며 4백50만명 이상의 병력을 무장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군 태평양사령부 휘하의 전함 2백50척, 항공모함 4척, 헬기 1천대, 공군기 1천5백대, 전차 3천대, 장갑차 5천대, 포 6천문이 동원될 수 있으며, 거기에 일본 ≪자위대≫ 무력이 가세할 수 있다. 북(조선)이 이처럼 세계 최대 규모의 제국주의 군사력에 단독으로 맞서는 조건에서 반제자주위업을 수행해야하므로 자체의 군사력을 중시하고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자명한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에게 짓밟혔던 프랑스가 종전 후 국력을 집중하여 군사력을 키워야 했던 것처럼, 일제 식민지 36년동안 일본군에게 짓밟혔으며 3년동안의 한국(조선)전쟁을 거쳤던 북(조선)도 국력을 집중하여 군사력을 키워야 했다. 1963년에 다쏘항공사가 미라주 전투기 독자생산에 성공하였을 때, 프랑스제 핵폭탄을 실은 프랑스제 전폭기를 보유하려던 제국주의진영의 군사전략가 드골(Charles de Gaulle)이 추구했던 군사강국의 꿈이 실현되었다면, 1998년 8월에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의 발사가 성공하였을 때, 반제자주진영의 군사전략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국산 핵탄두를 탑재한 자국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반제군사강국의 꿈을 마침내 실현하였던 것이다.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북(조선)도 군사력의 독자화, 자위화를 실현함으로써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군사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물론 북(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놓여있는 근본적인 차이는, 전자는 반제자주진영의 선봉에 서 있는 영도국인 반면 후자는 제국주의진영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은 말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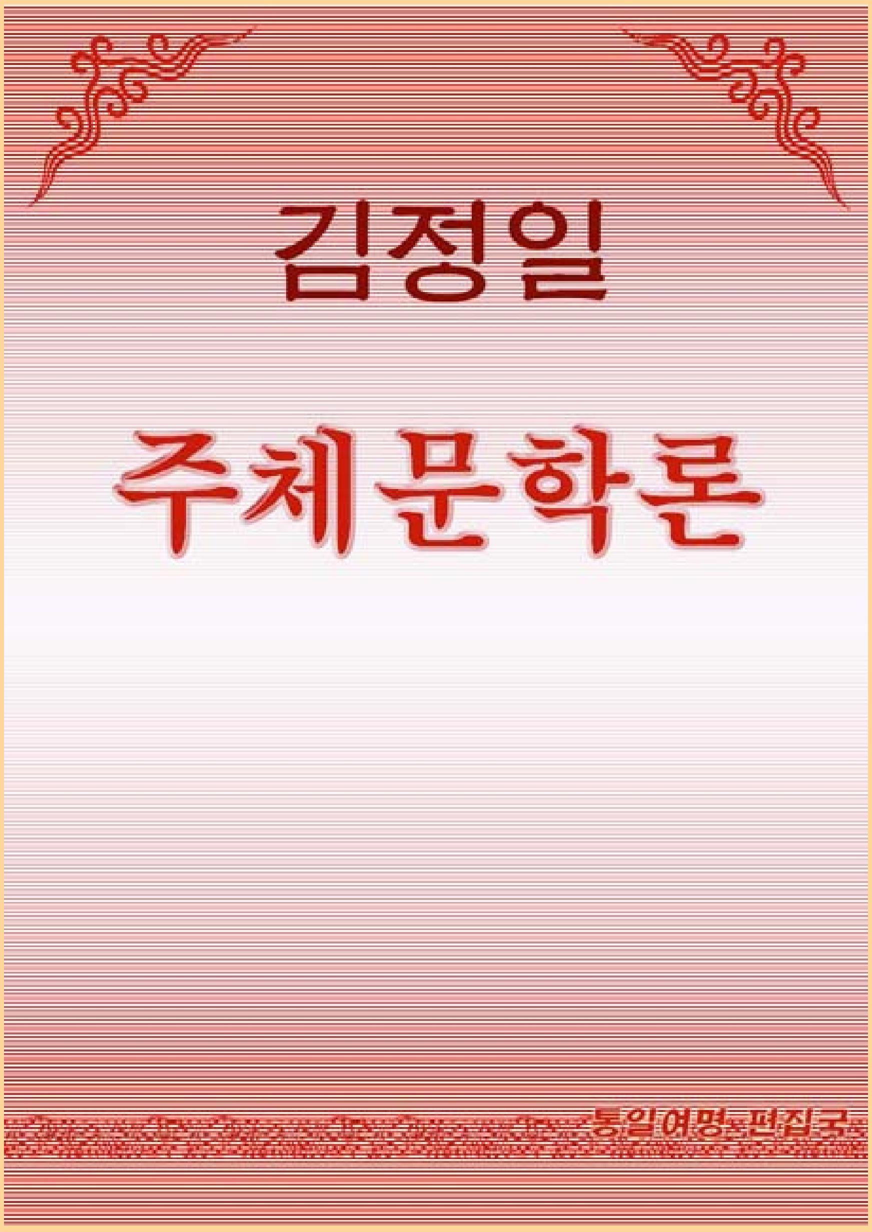
➡

광고

주체문학론

주체81(1992)년 1월 20일

1. 시대와 문예관
2. 유산과 전통
3. 세계관과 창작방법
4.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문학
5. 생활과 형상
6. 문학형태와 창작실천
7. 당의 영도와 문학사업



필요도 없다.

지난 시기 사회역사의 진보를 추동하였던 모든 사회변혁운동의 전략들이 당대에 제기되었던 가장 절실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처럼, 오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도 단순한 강병책(强兵策)이 아니라 현 시대가 제기하고 있는 가장 절실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다면 현 시대가 제기하고 있는 가장 절실하고 근원적인 문제란 무엇일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은 그 문제를 자주위업, 다시 말해서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억압과 속박, 착취와 약탈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그 전략에 의하면 인류진보의 역사는 인류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가 된다.

세계사를 돌이켜보면, 나침반과 화약을 사용했던 발생기의 제국주의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제국주의자들이 ≪중상주의 정책≫과 ≪새로운 대륙의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파괴한 역사, 곧 16세기 이후 서유럽에서 상업자본이 축적된 역사로부터 출발하였다. 서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이후 전함과 대포로 무장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일본의 제국주의세력은 ≪문명화(civilization)≫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세 대륙에서 침략과 약탈의 만행을 확대하면서 세 대륙 인민들에게 식민지의 재앙과 고통을 끊임없이 강요하였다.

그리고 20세기에 출현한 현대 제국주의진영은 핵무기와 전략미사일로 무장하고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정복과 예속의 공간으로 삼고, 전 인류를 지배와 약탈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날뛰고 있는 중이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가 범선 세 척을 이끌고 아메리카행 뱃길에 올랐던 때로부터, 그리고 1497년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가 범선 네 척을 이끌고 인도행 뱃길에 올랐을 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오늘,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수장인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W. Bush)는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이끌고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고 있다.

지난 500년 인류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진보적 인류가 자기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실현의 길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적대세력인 제국주의자들과 투쟁하는 반제자주화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콜럼버스와 바스코 다 가마 이후 지난 500년동안의 역사적 경험에서 진보적 인류가 깨달은 진리다. 이 깨달음은 천년기를 마감하는 20세기에 이르러 한(조선)민족의 피어린 반제자주화운동을 통하여 마침내 세계관의 기초를 가진 과학적인 혁명사상으로 완성・확립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은 그 혁명사상을 구현하는 반제혁명전략이다.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위업을 수행하는 모든 민족성원들, 그리고 인류의 반제자주위업을 추구하는 진보적 인류성원들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전략이 어떠한 실천적 경험에 의해서 창제되었으며, 지금 어떠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가장 격심한 고난을 겪었다는 20세기 말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이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도발직전까지 몰아갔던 숨막히는 고비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언제나 혁명군대의 병사들 속에 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들 속에서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포악한 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할 반제자주역량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북(조선)의 해설에 따르면, 1995년 1월 1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이 창제된 날이라고 한다. 2001년 11월 18일자 ≪로동신문≫은 그 날을 가리켜 ≪이 땅우에 선군정치의 첫 포성이 울린 력사의 날≫이며 ≪우리 건군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칭송하였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그 해 설날 아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푸르싱싱한 다박솔로 뒤덮여 있는 포진지≫를 찾아갔다. 그는 다박솔로 뒤덮여 있는 중대 주변을 둘러보면서 동행한 일군들에게 ≪다박솔 중대요, 이런 곳을 다박솔 중대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중대병사들에게 ≪동무들, 설명절을 잘 쇠고 있습니까?≫하고 인사를 하였다. 병사들은 ≪명절을 잘 쇠고 있습니다!≫라고 화답하였다. ≪다박솔 중대≫의 대공포 진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병사들의 화력복무훈련을 지켜보았고, 중대의 교양실과 병실도 세심히 둘러보았으며 병사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촬영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박솔 중대≫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었다고 한다.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강대한 인민군대가 있는 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확정적입니다.≫(로동신문 20001년 11월 2일자) ≪나는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흙냄새도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최고사령관이 될 것입니다.≫(로동신문 2001년 11월 18일자)

≪평양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4년 7월부터 2000년말까지 6년 6개월동안 인민군대에 대한 현지지도를 무려 2백75회나 하였으며 찾아간 부대는 5백60여개나 된다고 한다.(연합뉴스 2001년 10월 15일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때로 강냉이가루빵과 토장국으로 끼니를 때우며 진행하였던 현지지도의 기나긴 행정은, 반제자주화운동의 최고 단계인 반제혁명투쟁이 왜 자기의 전선에 노동계급보다 혁명군대를 앞세워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현대 제국주의진영에 맞서 투쟁하는 자주시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에 의해서 선군시대라는 또 하나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되었다. 선군혁명전략은 마침내 2000년 10월에 조미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위업을 실현하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무한정한 전쟁책동과 약탈야욕에 억제의 쐐기를 박은 역사적인 사변을 일으켰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장) - 2002년 3월 15일 작성

히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조국통일의 기본열쇠 (2)

21세기 **김정일**시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민족자주정신,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민족통일위업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과 민족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통일운동에 나서게 하는 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밖에는 없다.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 민족통일의 숙망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의 가장 올바른 진로를 명시한 사상인 것으로 하여 온 민족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사상으로, 자기 운명개척의 생명선으로 받아들이고 자주위업의 실현에 청춘도 생명도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 재산도 다 바쳐 나서게 하는 사상이다.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통일위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각오를 가지게 하는 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밖에는 없다. 사상은 권력으로 강요한다고 하여 민중에게 접수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동조동근설을 강요하여 황국신민화를 강요하였고 한국의 역대 통치배들이 반공을 국시로 하고 반공사상을 권력으로 강요했으나 민중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 민중의 자주성실현의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사상만이 민중 자신의 사상, 민족의 사상으로 접수되고 생명으로 되는 것이다.

조국통일, 민족자주위업완성의 주체를 마련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민족의 숙원을 실현할 길을 명시해주는 사상은 바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국통일, 민족자주위업을 좀먹는 온갖 반동적인 사상조류를 가장 철저하게 격파할 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이론적 무기이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애국과 매국, 자주와 사대간의 심각한 사상투쟁이다. 역사는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주의 길만이 애국애족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주적 운명의 공동체인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자주성은 민족생존의 근본요구이며 민족의 존엄과 운동발전의 근본내용이며 민족의 생존방식이다. 자주성을 잃은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

주체사상은 사대와 외세의존,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심각한 사상투쟁 속에서 자주의 기치를 들고 창시된 자주의 사상이며 온갖 교조주의와 사대주의, 수정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옹호고수되고 심화발전된 혁명사상이다.

오늘 이남과 해외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의식을 좀먹는 온갖 반동적인 사상, 반공과 숭미사대주의, 공미굴종사상, 교조적 마르크스주의, 현대사회민주주의와 그 각종 변종들을 가장 철저히 분쇄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상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밖에는 없다.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밑에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절대적인 사상이론적 권위에 의해서만 온갖 반공과 숭미사대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격파하고 계급혁명을 전면에 내세우는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와 무정부주의적 좌경급진주의 사상인 네오마르크스주의, 현대사회민주주의와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등 수정주의, 개량주의 사상조류를 철저히 극복하고 조국통일운동을 자주의 궤도를 따라 떠밀고나갈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밑에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절대적인 사상이론적 권위에 의거할 때에만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 민족자주위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역사가 실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며 우리 민족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계속)